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출범... '시혁신 거점' 광주에 '벤처허브' 만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대구시와 균형발전 현안회의 개최

국토부,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추진 전폭적 지원



▲ 삼성전자가 20일 광주시 서구 삼성화재 상무사옥에서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 스타트업 대표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사진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광주시 강기정 시장(다섯 번째),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원표 사장(여섯 번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일곱 번째)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20일 광주시 서구 삼성화재 상무사옥에서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 개소식을 개최했다.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는 삼성전자가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광주 상무지구에 신규 조성한 공간이다. 지난 2월 'C랩 아웃사이드 대구'를 신설한 데 이어 이날 'C랩 아웃사이드 광주'를 출범한 삼성전자는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스케일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C랩 아웃사이드 광주'는 2018년부터 삼성전자가 운영해온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의 특징과 노하우(업체 선발, 육성, 사업 협력, 투자 유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광주 지역 스타트업들을 지원,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매년 광주에서 별도로 공모전을 진행, 광주 소재 스타트업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었다. 또한, 전문적으로 육성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임직원이 업체별로 1:1 매칭되어 밀착, 맞춤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C랩 아웃사이드 서울'과 'C랩 아웃사이드 광주'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업체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고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4월 중 'C랩 아웃사이드 경북'을 출범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 광주시 서구 시청로 삼성화재 광주 상무사옥 20층에 위치 (470여평) 스타트업 업무공간, 네트워킹공간, 회의실, C랩파트너 사무실, 휴게공간 등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가 위치한 상무지구는 광주시청, 주요 대기업의 지역본부 등이 위치한 광주의 경제·행정 중심지 AI/헬스케어/소재부품 등 광주 지역 혁신 스타트업 5개사 선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광주 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AI, 헬스케어, 소재부품 분야 등 지역 내 혁신 스타트업 5개사를 선정했다. 특히 'AI 혁신거점'이라는 지역 특성에 맞게 AI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 선발했다. ▲경량화 솔루션을 적용한 AI 모델 개발 기업 '클리카' 대용량 AI 모델 구현을 위한 자동 압축 및 포맷 변환 솔루션을 소형 디바이스에 구현하여 인프라 구축 비용 및 클라우드 사용료를 최대 80% 절감 '스타트업 아우토타만 코리아' 선정 ('22년 7월) ▲ AI 기반 생체정보 인증&결제 솔루션 기업 '코스트패스' 스마트폰에 생체 정보 저장 후 스마트폰 없이도 인증 가능한 기술로 생체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문제 차단, 기존 대비 70~90% 비용 절감 '광주시와 인공지능 산업육성 MOU 체결' ('21년 1월) ▲ AI 활용 동물 생체 분석 및 가축케어 플랫폼 개발 기업 '인트플로우' AI 영상 분석을 통해 동물 안면 인식 및 체온 측정은 물론, 행동패턴, 무게 등 다양한 정보를 측정, 분석국내외 11건 특허등록 ▲ 얼굴 영상으로 건강/감정 상태 모니터링 솔루션 기업 '감성텍' 심장 박동에 따라 달라지는 얼굴의 미세한 움직임 및 색상 변화 감지 전남대 병원과 파일럿 테스트 진행 ('21년) ▲ 에너지 절감 냉각 소재(필름/페인트) 개발 기업 '포엘' 열 차단 방식이 아닌 내부 열을 방출하는 복사 냉각 기술 적용, 열 흡수 최소화하는 다양한 색상 구현 가능 '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대 나노기술' 선정 '엔 아사프' '클리카'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다양한 글로벌 인력(한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등)들로 구성된 당사 입

장에서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상당한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C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단계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영민 '포엘' 대표는 "'C랩 아웃사이드'로 선정되어 큰 자신감을 얻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협업 기회가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다. 'C랩 아웃사이드 광주'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최대 1억원의 사업지원금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삼성전자 및 계열사와의 협력 기회 연결 ▲CES 등 국내외 IT 전시회 참가 ▲국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1년간 서울의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C랩 광주' 발판 삼아 광주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되기를 기대" 이날 개소식에는 광주시 강기정 시장,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원표 사장 등이 참석하여 'C랩 아웃사이드 광주' 개소식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올해 미 CES에서 삼성 'C랩 전시관'을 방문하기도 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인해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 도시' 실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며, "'C랩 아웃사이드' 많이 나와 광주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역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체계적인 스타트업 육성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C랩 아웃사이드'가 앞으로 광주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지역 스타트업 지원은 지역의 창업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C랩 아웃사이드 광주'가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원표 사장은 "스타트업의 혁신성, 역동성과 삼성의 노하우, 인프라, 네트워크가 시너지를 내면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광주의 창업 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3월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구시를 방문해 최근 발표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방안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대구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장관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대구시청을 방문한 것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 미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기 추진과 제대로 된 대구경북신공항을 위한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대구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정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 미래차와 로봇이 융합된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대구성장을 이끄는 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는 국가산단의 조기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예비타당성조사 등 주요 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대구의 첨단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월 중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할 뿐만 아니라, 광역도로 및 철도 등 계획된 연계교통망도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법안 통과 이후 조속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중앙고속도로 확장,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대구경북선 철도 건설의 적극적 추진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등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대구굴기의 핵심사업"이라고 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숲과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길. 영양읍에서 영양읍까지.

물

한강의 맑은 물이 흐르는 영양읍. 영양읍에서 영양읍까지.

빛

한강의 맑은 물이 흐르는 영양읍. 영양읍에서 영양읍까지.

맛

사방이 푸르니, 영양읍. 영양읍에서 영양읍까지.

쉼

자연과 벗하면, 영양읍. 영양읍에서 영양읍까지.

영양 들머리보기

한강을 다가가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 남이도,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사계곡, 천덕공원, 측백수림, 외씨비선길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물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강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민속박물관,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태박물관, 분재수목생태전시관

영양군 YEONGYANG-GUN

IDA KOREAN ASSOCIATION

영양나들이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담회 실시

28개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불합리성 문제, 도민 피해로 확대될 수 있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민주,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정원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정담회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불합리성에 대해, 2부에서는 육아 휴직 등 휴직자의 대한 결원 보충 및 정원 통합관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담회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불합리성에 대해, 2부에서는 육아 휴직 등 휴직자의 대한 결원 보충 및 정원 통합관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회 관계자들은 연간 2회, 1개 기관 직원으로 제한된 통합채용에 대해 ▲결혼 인력 수급 지원 ▲채용 응시자격 제한 및 기관별 인력 쏠림 현상 ▲기관별,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채용 방법 필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덧붙여 기관별 자체 채용 및 통합채용 횟수 확대로 채용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필요 인력에 적합한 채용절차 및 중복 응시 기회 보장으로 해당 기관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원관리 주제에서는 ▲육아 휴직 등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 및 정원 통합 관리 ▲위탁사업의 고용사업화 등으로 기관의 고용기능 확립 필요 ▲경기도의 조직 정원관

리 추진 계획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회 관계자들은 휴직자 등에 대한 별도정원 및 정원 통합관리 제도 개선, 위탁사업의 고용사업으로 전환, 민선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 인력 및 조직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 지원 및 협조,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담회 자리를 주관한 황세주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서 그간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승현 의원은 "좀 더 일찍 이러한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말하며,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

고,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현 의원은 장기간의 위탁사업 문제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기관 고유의 사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논의를 해보고 기관의 특성에 부합한 위탁사업은 기관고용사업화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을거 같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김선영 의원, 이경혜 의원, 박재용 의원도 해당 상임위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언급하고, "간담회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집행부와 심도있게 논의해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원들을 비롯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회 김중우 의장을 비롯한 20개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혜영/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 고민 나서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3월 20일 교육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 나섰다.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에는 김선옥 위원장과 김수연 부위원장,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 위원, 시흥경찰서,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우리시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에 대한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살피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갈수록 형태가 다양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학교폭력에 맞 대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수연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에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위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원활한 정보 교류로 내실 있게 운영돼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법조인,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중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옥 위원장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 학교폭력 현황에 대한 교육복지위원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하며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시흥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 센터 등이 각자의 분야에서 꼼꼼히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경남도의회-라오스 비엔티안주의회 교류 추진

경상남도의회가 라오스 비엔티안 주의회와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호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 관계 구축 및 상생발전 방안 모색이 주요 목적이며, 의회운영위원회가 라오스 비엔티안 의원연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면서 논의된 결과이다.

지난 16일 오전, 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과 연수 참가의원 7명은 비엔티안주의회의 장의 교류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김진부 의장은 신중개발국인 라오스의 수도권 주요 자치단체인 비엔티안주와의 교류는 상호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단, 비엔티안 주지사로부터 경남도의회는 물론 경남도와도 교류의향을 제안 받은 만큼, 경남도와도 소통하여 효과성을 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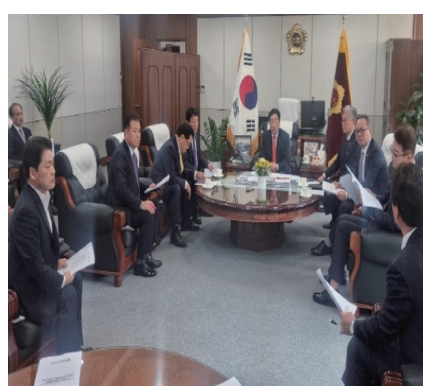
정규권 의원을 비롯한 연수 참가의원들은 의료·소방 등 재난 장비와 전자제품에 대한 물품 지원, 선진 농업 기술이전, 새마을 운동 전파, 농촌 및 산업 인력 자원 교류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남 이미지 제고 및 각종 기회 선점과 다양한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로 경남도의 세방화 가속

화, 국제교류 협력사업 심화 및 영역 확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는 지난해 의회운영위원회가 라오스 비엔티안주와 주의회 방문 시, 주지사와 주의회장이 각각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와의 교류 요청을 했고,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전달기로 한 것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장재현/기자



충청남도의회, 주거·상업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탄력 붙는다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표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차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인구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공공기관, 학교 또는 공동주택 등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대선 (112)	문화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선 (113)	부동산부:대선 (117)
	경제부:대선 (114)	오리니언부:대선 (118)
	스포츠부:대선 (115)	지방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평택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OOD AIR CITY 인증도시

대한민국의 숨, 울진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

전국 최초! 송파구, 독거 어르신위한 수당 신설...틈새없는 복지 실현

서강석 구청장, 생활 어려운 홀몸노인 경제적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호수당' 제도가 관내 차상위계층의 독거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송파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법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매월 7만원씩 생활보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거여2동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A씨(80세, 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주된 소득으로 노인 일자리를 통해 간헐적으로 하루 3시간씩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호 수당' 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도움이 시급한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이다.

장지동에 거주하는 B씨(72세, 남)는 기초수급 대상에 들지 않으나, 건보료, 통신비 등이 체납되는 등 생활고를 겪어왔다. 그러던 중 송파구에 전입하여 올해 1월부터 송파구의 '독거노인 생활보호 수당'을 받게 되어 생활 형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제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호 수당' 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도움이 시급한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이다.

위례동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C씨(80세, 남)는 몸이 아프고, 고령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어렵게 생활하

고 있는 와중에 구청에서 매달 추가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서울광장에서 봄을 느껴보세요, 푸른 잔디와 꽃단장으로 봄 마중 완료

서울광장 잔디 3년 만에 전면 교체...도심 속 녹색공간으로 건강한 봄기운 선사

포근해진 날씨에 도심 속에도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 전해지고 있는 요즘,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도심 속 푸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광장 내 잔디를 3년 만에 전면 교체하고 화사한 봄꽃 식재로 봄 단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30종 6.950본을 준비해 광장 환기구조 주변 녹지대와 대한문 앞 녹지대에 대형화분 및 테마 화단을 조성했다. '꽃수국', '비올라', '수선화' 등 다채로운 봄꽃이 푸른 잔디와 어우러져 화사한 봄 풍경을 선사한다.



최광수/기자

도심 속 녹색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서울광장(총면적 6,300㎡, 약 1,900평)은 그동안 각종 행사로 인한 시설물 설치 등으로 손상된 잔디를 걷어내고 3월 15일 ~16일 이틀에 걸쳐 200여 명의 서울시 근로자들의 참여로 공간 정비와 함께 잔디를 전면 교체해 푸르고 건강한 봄기운을 입었다.

아울러 세종대로 사람숲길(총길이 1.55km)에는 시기에 따라 꽃이 자연스럽게 피고 지는 경관연출을 위해 겨울에 심어두었던 튤립이 푸른 짙을 틔우면서 알록달록한 꽃들로 봄의 온기를 더해줄 것이라 밝혔다.

서울광장은 잔디의 생육을 위해 4월 30일까지 활착 기간을 거친 후 시민들에게 녹색 쉼터로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 하재호 소장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봄을 맞아 서울광장 내 봄맞이 준비에 노력을 기울였다"라면서 "가벼운 산책길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꽃과 어우러진 봄기운을 오감 가득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광장은 잔디와 함께 꽃도 총

"벚꽃 보며 달리자"...은평구, 2023 벚꽃 마라톤 대회 개최

4월 2일 불광천변에서 은평 벚꽃 마라톤 대회 열어

서울 은평구는 오는 4월 2일 봄의 명소인 불광천변에서 '2023 은평 벚꽃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최만식/기자

올해는 민선 8기 변화의 은평을 맞아 처음으로 불광천에서 마라톤 대회를 마련했다. 불광천 벚꽃축제 '은평의 봄' 개최에 맞춰 진행하며, 참가자는 선착순 접수를 통해 총 600명을 모집했다.

이 벚꽃 피는 불광천의 봄을 느끼며 구민 모두가 하나가 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첫 대회"라며 "구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확대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라톤 코스는 2가지로 10km 코스는 불광천수변무대에서 출발해 홍제천 입구를 지나 마포 성미다리를 반환점으로 돌고, 5km 코스는 불광천수변무대에서 출발해 중산교를 반환점으로 돌게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마스크 없

참가자는 당일 오전 8시까지 집결해 사전 준비운동과 개회식 후, 9시에 10km 코스부터 출발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완주기념품을 지급한다.

이다.

구는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행사장에 구간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탈의실, 물품보관소, 응급구호 부스 설치 등 행사 준비에 철저히 할 방침

이 벚꽃 피는 불광천의 봄을 느끼며 구민 모두가 하나가 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첫 대회"라며 "구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확대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서초구, 지역사회와 고시원 특별관리로 '쓰쓸한 1인가구 비극' 막는다

서울시복지재단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2021년 총 1,100건 이상의 고독사 위험 사망이 발생하며 특히 노후주택, 고시원 등에서 그 위험이 더해지고 있다.

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의 서초1동은 은둔형 외톨이, 중년1인 가구, 청년 등이 많은 고시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총출한 고독사 안전 그물망을 마련했다. '서초1동 고독사 없는 고시원 네트워크(이하 '고고넷')' 사업이 그것이다.

오는 22일에는 서초1동주민센터에서 고시원장과 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복지 전반에 대한 안내를 한다. 먼저 지난해 11월, 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작한 '위기가구 찾는 법' 안내서를 활용해 일상 속에서 유심히 살펴야 하는 이웃들에 대해 사례 유형별로 소개한다. 이외에도 △긴급 복지사업 등 복지제도 △1인가구 지원사업 소개, △서초소방서의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 교육 △고시원장의 견수령 순으로 진행한다.

'고고넷'은 서초1동 주민센터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고시원에 거주하는 복지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신속한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다.

또, 지난달부터는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3곳을 대상으로 '책나눔 꿈드림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정기적 기부와 후원으로 마련되는 도서들은 고시원의 안내 창구에 설치된 책꽂이에 매월 2~3회 위원들의 책 배달 봉사로 전달된다. 동화책, 에세이, 웹툰소설 등 밝은 주제를 담은 도서를 배달하고 있으며, 고시원 거주자들의 희망 도서도 받는다.

서초1동은 서초구 내에서 타동보다 높은 비율의 42곳의 고시원이 있으며, 1인가구 비율이 45%에 달하는 등 고독사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고시원 위기가구 특별 관리에 나선 것이다.

서초1동 고시원에 거주 중인 주 00씨(50대, 남)은 "읽고 싶었던 책을 대상으로 컬러링 심리지원 사업인 '그림으로 묻는 안부인사'도 지난 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복지플래너가 대상자별 색연필, 컬러링페이퍼 등 아트꾸러미를 제공하고, 몇달 후에 작품 전시회도(6월 예정) 개최 참여자들의 취미생활 지원 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 치매예방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고고넷'의 주요 사업은 △고시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고시원장 고독사 예방 안전교육 및 간담회 △고시원 책 배달지원, △컬러링 심리지원 안부인사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해 고시원 거주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돕는다.

정동희/기자

먼저, '고시원 민관협력 네트워크'는 동 지역 내 42곳의 고시원장과 고시원 거주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장을 지난 17일 마련했다. SNS 플랫폼인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시원장 및 고시원 거주자 간 신뢰관계와 유대감을 쌓도록 했다. 복지서비스, 1인가구 지원사업, 일자리 등 다양한 혜택과 구정 소식도 안내한다. 또, 동주민센터 직원과 동 복지플래너도 이곳에 가입돼 있어 고시원 고독사 위험 가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실시간 채팅으로 고시원

영등포구, 어르신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 '같이'의 '가치'

약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틈새 없는 복지 실현할 것

영등포구가 오는 24일까지 '어르신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동행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박환신/기자

'어르신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동행 일자리'는 어르신 사업장에 장애인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약자와 행복한 동행을 실현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기회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과 함께하는 동행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는 동행 일자리 사업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과 어르신이 함께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같이'의 '가치'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장애인 고용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은평구 "꿈을 지원해드릴게요"...2023년 상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서울 은평구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대학생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은평구민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민 장학생'은 2007년 설립된 공익법인(재)은평구민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장학사업이다. 은평구에서 출생한 기금과 구민이 기탁한 후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초·중·고·대학생으로 오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선발 분야는 2가지로 일반 장학생은 소득과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 재학생이며, 특기 장학생은 입성 성적이 있는 초·중·고 재학생이다. 장학생은 성적,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모집 분야별 평가 기준에 따라 오는 4월 심사를 거쳐 선정해 오는 5월 중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총규모는 1억 2천만 원이다. 초등학교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교생 50만 원, 대학생은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대학생이 국가,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는 차액만 지급되며, 차액이 50만 원 이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 방법은 은평구청 3층 시민교육과 (재)은평구민장학재단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장학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민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업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은평구민장학재단 2023 상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기간: 2023.3.22(화) ~ 4.10(월). 지원자격: 은평구민(재)은평구민장학재단이 있는 초·중·고·대학생. 선발분야: 일반 장학생, 특기 장학생.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민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인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곳 적발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23개소 대상 수사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소비 되는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 및 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 특사경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으며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 ▲원료 출납 관계 서류 거짓 기재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품목제조보고 허위보고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는 원료 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목제조보고를 허위 보고한 경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파주시, 이륜차 불법 개조·소음 합동단속 실시...15건 적발

변호판 위반,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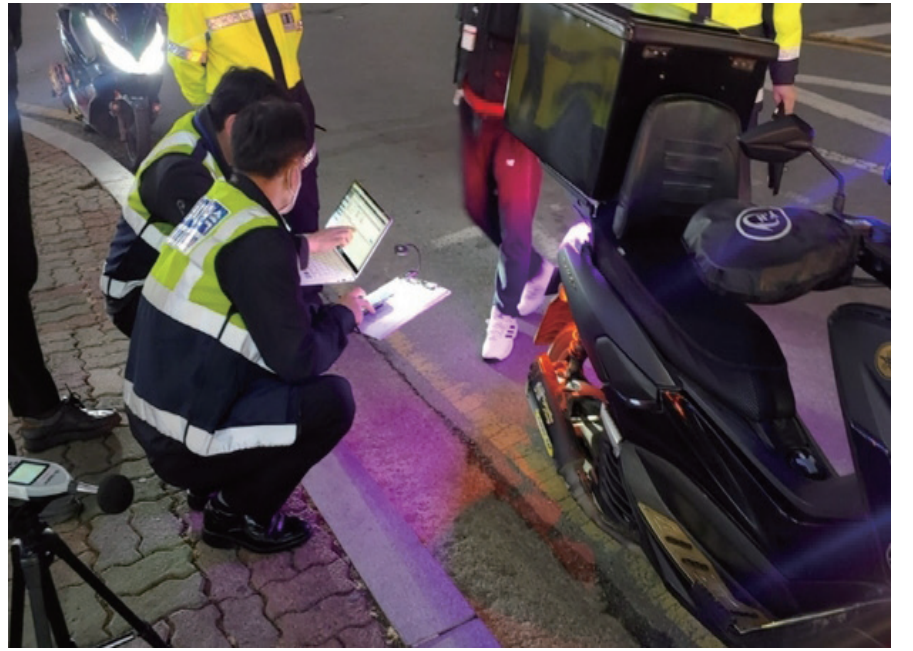
파주시는 지난 10일 야간 20~22시에 금릉역 앞 중앙광장 인근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파주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이며, 단속 결과 ▲변호판 위반 5건 ▲안전기준 위반 6건 ▲불법튜닝 4건 등 총 15건이 적발됐다.

이날 오토바이 운행자에게 급가속 및 불필요한 경적 자제 등 소음 유발행위를 계도했으며, 위반 사항이 발생한 이륜차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륜차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연중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단속은 5월경 운영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조운욱 환경지도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인천 특사경,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한 7곳 적발

기획수사 벌여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반입해 불법 처리한 재활용업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등 법을 위반한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서구 소재 특정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공사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2월 서구청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신고 없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또, 기초자 차단체별 조레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지만,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레에는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사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수거 처리하는 등 불법 조리의 우려가 있다.

수사 결과 A업체 등 6곳은 규정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B업체는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서구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한편, 시 특사경은 최근 해빙기 및

봄철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지는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군·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계속 노력하는 한편, 공사장 폐기물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레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괴산군, 도로환경 개선 위한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 단속 나서

충북 괴산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일부 상가의 경우 인도나 차도에 물건을 진열 판매하고 상품의 무단적치 등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할뿐더러 보행 안전의 위험 요소가 돼 적극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군은 지난 15일 건설과, 안전정책과, 도시건축과, 경제과 및 안전보안관이 참여해 무단적치 단속과 자진 철거를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확장 영업하는 행위 △업소에서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이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자진 원상복구 등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는 도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청결하고 쾌적한 청정 괴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통해 걷기 좋은 환경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부산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업소 등 불법행위 17건 적발!

치킨, 피자, 떡볶이, 찌개류, 육회, 생선회, 중화요리 등 객석 갖추지 않은 배달전문업소 250여 곳 대상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야식전문 배달업소 등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업 등을 통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문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시민들의 배달음식 수요는 증가했지만 배달전문업소 대부분이 객석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가 조리장의 위생상태나 식재료의 보관상태 등을 알 수가 없어, 이를 악용해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수사는 수사대상 대부분이 치킨, 피자, 떡볶이, 찌개류, 육회, 생선회, 중화요리 등 야식전문 배달업소가 대부분이라 야간에 집중 실시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선타지로 가렸고, 이로 인해 식재료 보관상태와 위생상태 관리에 매우 취약했음을 확인했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17건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된 식재료 사용·보관행위 6건 ▲심각한 위생불량 조리장·조리기구 7건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3건 ▲원산지 국내산 둔갑행위 1건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식육의 원산지 전부 미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광삼/기자

예산군,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

지난 18일 발빠른 대처로 금오산 산불 조기 진압 완료

예산군이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1시 25분에는 예산읍 금오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군은 약 3시간만에 조기 진압을 완료했다.

군은 산불신고 접수 후 최재규 예산군수를 중심으로 상황판단 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 5대, 소방차 6대, 헬기 6대, 공무원 405명, 소방대원 2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 부여국유림관리소 특수진화대 12명 등 637명을 현장에 조기 배치해 산불확산을 저지했다.

특히 주민 대피 방송 및 재난문자 발송 등 발빠른 군의 대처로 민가로의 확산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

았으며, 산불피해 면적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피해면적은 2ha로 추정되며, 군은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 가해자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산림녹지과 및 12개 읍·면 관계자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행위 금지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 또는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갖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삶을 문화로 만드는 문화브랜드 매니저, 용인문화재단' 새로운 비전 제시

- 재단 비전 재수립을 통해 재도약 다짐 - 브랜드 문화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대표사업, 2024년까지 실행 목표!

(재)용인문화재단 김혁수 대표이사 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단 취임 100일을 맞아 언론브리핑을 열고 재단의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2월 취임 이후 재단에 대한 대내외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 개선을 위해 조직 내 소통 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올 초 임직원 인터뷰와 비전 수립 워크숍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삶을 문화로 만드는 문화브랜드 매니저, 용인문화재단'이라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6가지 핵심 사업 키워드로 ▲소통의 문화 ▲전략적 문화 ▲특별한 문화 ▲축제의 문화 ▲공격적 문화 ▲브랜드 문화를 꼽았다.

'삶을 문화로 만드는 문화브랜드 매니저, 용인문화재단'을 위한 소통

먼저 문화로 소통하는 문화재단으로서 '소통의 문화'를 강조했다. 재단 내 외부로 부재했던 소통창구를 열어 건강한 조직문화 도모 및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재단을 실현하고자 기존의 홍보미디어에서 변화된 소통전략을 모색했다. 시민부터 문화예술 전문분야 관계자까지 각 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함께 만드는 용인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원, 예총, 민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업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지역예술인 및 단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오케스트라 단체 지원 및 육성사업>을 추진해 2개 단체가 선정돼 단체별 연 4회의 기획공연 및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지원금 1억 원과 함께 상설연습실 및 기획실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수반돼 안정적인 창작활동에 기여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으로 정통 클래식을 지역 내 보급해 교향악 분야의 저변 확대 및 순수예술 장르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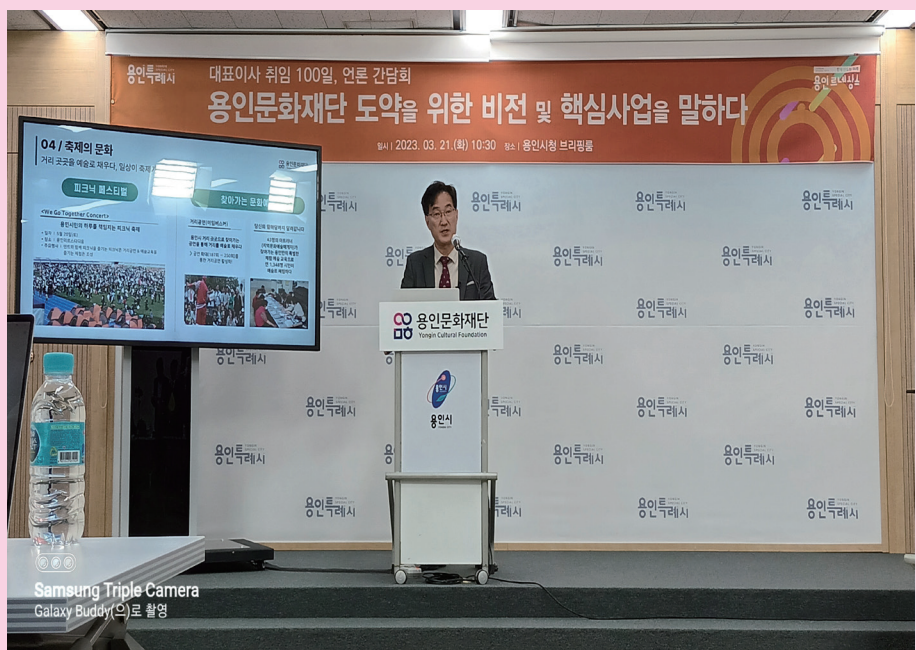
그간 운영했던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신규 지원사업 목이 신설됐다. 특히 70세 이상 전문예술인을 지원하는 <원로예술인지원사업> 신설과 함께 공모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원 사업 접수용 돕는 대리 창구인 <지원사업도우미제도>도 새로 도입해 전년 대비 50% 증가한 신청 접수가 들어오면서 예술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 예술인 참여 활성화를 증명해 보였다.

예술을 꿈꾸는 청소년과의 소통을 위한 장학사업인 <용인청소년예술꿈드림>은 농협용인지지부(1천만 원), 재단 참여도움조합(2백만 원) 등의 기부금과 재단 임직원의 급여 우수리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관내 청소년들을 선발해 그들의 문화예술 전공을 위한 꿈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다양성과 대중성을 제고한 예술교육

두 번째로 시민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전략적 문화'사업을 강조했다. 2012년 용인포에아트홀 개관 이래 매년 70여개의 강좌를 운영 중인 순수예술교육 <용인포에아트홀 아카데미>를 포함, 끼 있는 시민들이 한층 더 성장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예술(연예인) 아카데미>를 올해 새롭게 선보인다.

밴드 중심의 보컬, 악기 교육과 전문 프로듀싱을 통해 용인 곳곳을 누비는 아티스트 그룹으로 성장시켜 향후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지역 기반의 아티스트 그룹을 확충하는 지역의 대중문화 예술환경을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관내 거주하거나 용인 출신의 유명 연예인들이



명예 마스터로 나서 참여자들의 기량 향상과 활동 영역 확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오는 5월 참여자 모집을 목표로 세부 사업을 기획 중이며, 4월 중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공연사업의 전략화를 위해 단순 공연장 제공에서 벗어나 공연의 주제적인 공동제작 참여로 문화도시를 선도하는 용인문화재단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올해 뮤지컬 <갯츠> 오리지널 내한공연, 뮤지컬 <맘마미아>, <시다르타> 등 세계적인 콘텐츠를 공동 주최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디즈니 탄생 100주년을 맞아 준비한 <디즈니 인 콘서트>를 비롯해 서울예술단의 대표작인 창작 뮤지컬 <신과함께 - 저승편>, 한국극공작소 마방진의 <붉은머리 안>, 세계적인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매직 앤 일루전> 등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용인시민의 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관심 확장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용인시문화재단 지원회에서 진행한 <ATTENTION Live>는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틱톡오픈 즉시 전석 매진이라는 큰 인기를 얻은 공연이다. 일회성 대관 공연을 지양하고, 세대별 전략적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추진한 기획공연으로 올해 공연 횟수를 늘려 더욱 다양한 출연진 구성으로 정례화해 선보인다. 용인 지역 내 상대적 문화소외지역인 처인구에서 MZ세대의 니즈를 충족시켜 처인구의 이미지를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로 변모시키는데 큰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만의 특별한 공간 '상상의숲' 재도약

제 번째,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이하 상상의숲)이 변화된 모습으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문화'를 선사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연 11만 명 이상의 입장객 수를 기록한 용인문화재단의 어린이 문화예술 체험 공간인 상상의숲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벗어난 올해, 운영 일수 확대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 본격적인 운영을 활성화한다.

상상의숲 28개 공간의 17개 상시 콘텐츠 외에도 어린이와 가족 모두 문화예술로 즐길 수 있는 특별행사를 연 5건 추진한다. 오는 4월 1일 상상의숲 야외광장에서 진행되는 봄맞이 특별행사 <상상해 '봄' 놀이터>는 △아임버스커 퍼포먼스 공연 △우리 가족 봄맞이 집꾸미기 △용인 엄마들과 함께 하는 플라마켓 등 야외에 마련된 다양한 예술 체험활동 부스와 △소망나무 만들기 △책 공연 <마쓰와 신기한 돌> 등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어린이날 <오! 상상이상>부터 9월 독서의 달 <상상북크닉>, 11월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 <행복한 우리 찾기>, 12월 크리스마스 <메리 상상 크리스마스>까지 시즌별 특별한 주제를 담은 특별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용인 대표 어린이 문화예술 콘텐츠 공공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상상의숲은 지난해 경기도 8대 분야 체험 학습처,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 지원사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금 1천 9백만 원)에 선정됐으며, 올해는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금 3천 5백만 원)에 선정돼 하반기 체험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상을 책임지는 가족체험형 축제

제 번째 핵심 사업의 키워드로 상이 축제가 되는 용인을 실현하고자 '축제의 문화'를 강조했다. 2013년 <메리샘머 뮤지컬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용인거리축제>, 2017년 <용인 러빙 유 콘서트&피크닉>까지 성공적인 축제를 선보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4년 만에 개최하는 용인문화재단의 대규모 축제인 <2023 피크닉 페스티벌 - We Go Together Concert>를 오는 5월 20일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진행한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온종일 즐길 수 있도록 △모바일 카트라이더 대회 △친환경 운동회 △가족 그림그리기 대회 등 낮에는 문화예술 체험을, 밤에는 콘서트 콘셉트로 △용인시립합창단 △아임버스커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크로스오버 그들 라포엠(박기훈, 유재훈, 정민성, 최성훈) △감성 듀오 멜로망스(김민석, 정동환) 등 공연 관람을 통해 용인시민의 오감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012년 <용인거리아티스트>라는 사업명으로 시작해 12년 간 이어져 온 용인문화재단의 대표사업인 <아임버스커>는 올해에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거리공연 아티스트들이 용인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수준 높은 공연 제공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되는 아임버스커 오디션은 역대 최고의 지원율로 올해 총 424명이 지원했으며, 1차 영상평가와 2차 공개오디션을 거쳐 음악(노래, 연주), 전통예술, 퍼포먼스, 댄스, 극 등 100명의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선발된다.

100명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정규 공연과 찾아가는 공연으로 운영되며 용인 거리 곳곳에서 진행되는 정규 공연은 더 많은 시민을 만나기 위해 기존 20여개에서 30여개로 정규 공연지를 확대했으며,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 지역축제 등에 아티스트를 지원해 용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재단은 용인시 3개구 간 문화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용인시민 3인 이상만 모이면 아트리너(Art Runner)가 어디든 달려가 예술 교육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예술교육 매개자인 아트리너를 40여 명 선발해 매년 워크숍 과정을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용인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예술교육인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시민이 문화에 향유하며서 그치지 않고 매개자로 성장해 이웃에게 예술교육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되도록 제시하고 있다.

현재 9개 지원사업 선정, 국도비 약 8억 2천만 원 확보

다섯 번째로 조직 내 실시간 지원공고 모니터링 및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역 관계기관 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공격적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재단의 도약을 말했다.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3 공인유통협력 사업>을 비롯해 한국문화예술회관련회의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사업> 등 2023년이 시작되고 3개월도 되지 않아 총 9개의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약 8억 2천만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

재단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6~7개의 지원사업 공모를 완료했으며, 향후 2~3개 지원사업 신청도 추진 예정이라 전했다. 김 대표는 "적극 행정에 전략적인 기획을 더해 외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남부권의 문화 메가로 자리매김을 할 예정이며, 전 세대가 함께 향유 가능한 문화예술 거점 조성을 이끌어가겠다"고 전했다.

'문화도시, 처인카니발, 대한민국 연극제' 추진

마지막으로 용인문화재단의 '브랜드 문화'를 구축을 위한 3대 대표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 △처인 카니발 △대한민국 연극제 유치를 추진해 2024년 실행 목표를 강조했다.

용인의 대표 문화도시 마중물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시민 소통 프로그램 <만만한 테이블>은 가벼운 미션을 통해 용인에서 해보고 싶은 문화 활동을 직접 상상하고 의견을 구체화하는 프로젝트로 총 2천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올해는 가상의 용인즐거움도시만들기위원회 위원장 후보 및 공약사항(주제) 5개를 설정하고 시민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선정된 주제들은 추후 <도시기록>, <O>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등의 문화도시 사업에 적용된다.

지난 2월 24일 개최한 제1차 문화도시 아젠다 포럼 <위성도시에서 문화로 살아남기>에서는 위성도시의 문화적 한계와 특화전략을 주제로 경기권 11개 도시(광명, 군포, 남양주, 성남, 수원, 양평, 용인,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가 한 자리에 모여 도시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과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오는 6월, 개최될 제2차 포럼에서는 문화도시 관련 해외 유명 문화도시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외 문화도시 우수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경기권 실무자 네트워킹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하고,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등 세부 일정 및 내용은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은 용인시 처인구의 역사를 담은 <처인 카니발>을 2024년 신규 브랜드 문화사업으로 추진해 관람형 축제의 개념을 탈피하고, 관객이 직접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의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전에 카니발 참가팀과 시민 기획단을 모집해 처인구청에서 용인사거리에서 이르는 금릉로 거리 일대에서 처인을 주제로 용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부여한 수준 높은 거리행진을 하고, 시민이 함께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운영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용인을 넘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연극축제 <대한민국 연극제>를 용인에 유치하고자 힘쓸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8억 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도비 시비를 추가 확보해 전국의 연극인과 마니아들이 함께하는 순수예술축제를 2024년 유치해 용인의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히며 용인문화재단의 6개 핵심 사업 보고를 마무리 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새싹 기업 해외 진출 지원한다.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제1·2 판교테크노밸리 내 글로벌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해 20개 사에 총 9억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경과원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글로벌 새싹 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 새싹 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진출 준비가 부족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새싹 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지원 사업이 시작돼 올해 사업 4년 차다.

지난해 18개 사에 8억 4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137억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과 31억 원의 국내외 매출액을 기록하며 총 168억 원에 달하는 도비 투입 대비 약 20배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달성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외 진출 사업화에 필요한 인건비, 제품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비, 동영상 제작비, 판로개척비 등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총 9억 5천만 원 규모로 20개 사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가 소재하고,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나 지사(해외 진출 관련 부서)가 판교 제1·2 테크노밸리에 소재하는 기업과 판교 제1·2 테크노밸리에 본사가 소재하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업은 1차 서면 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5월 말 최종 선정된



다. 모집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고급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어려움과 맞물려 해외 진출이 어려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새싹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우수한 새싹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과원 클러스터육성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 위한 화해중재단 본격 시작

- 학교폭력, 학생인권·교육활동 침해 갈등사안 화해중재로 관계 회복
- 13일, 20일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 화해중재 정책 이해, 업무 실제, 교육지원청 사례 나눔, 정책 제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화해중재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의 화해중재를 통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이다.

도교육청은 13일, 20일에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 화해중재단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화해중재 정책을 공유하고, 전문가 특강, 사례 나눔으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화해중재 정책 이해 ▲화해중재단 업무 실제 ▲교육지원청 사례 나눔 ▲화해중재단 위원 역량강화 방안 ▲정책 제안을 했다.

화해중재단은 학교 내 갈등 사안에 조기 개입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갈등 중재에 전문성을 지닌 중재위원을 위촉해 법률 자문, 갈등 사안 처리 등 현

장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사례 나눔에서는 '오해를 이해로 친구되자'는 안성교육지원청 '5279 화해중재단' 사례를 발표했다. 5279는 학교폭력 갈등조정사문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내 갈등 사안 각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을 지원한 사례이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화해중재단 운영을 통해 교육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최근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경미한 사안도 심의를 요청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체계적·전문적인 화해중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고, 학교 교육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 내 갈등 사안 해결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수원시 '스마트도시' 우수성 입증!

지난해 말 국내·외 인증 획득...시민 중심 서비스와 추진 체계 갖춰

도시가 똑똑해졌다. 예전처럼 하염 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대신 어떤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를 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건너야 할 사람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횡단보도도 자주 만날 수 있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도시'가 생활 속 편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가 스마트도시로서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국내 인증과 국제 인증을 차례로 확보하면서 시민제감형 스마트도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도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AI와 디지털 등의 수단을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등 스마트도시 확산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

◇스마트한 수원특례시, 국내·외 인증 완료

수원특례시는 지난해 스마트도시 관련 국내·외 인증을 획득하면서 명실상부한 스마트도시로 도약했다. 스마트도시 비전과 전략, 운영 현황과 사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으며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스마트도시 국제 인증은 지난해 12월 획득했다. 영국표준규격협회(BSI)가 심사해 인증하는 ISO37106(국제 스마트도시 표준)은 스마트도시를 위한 비즈니스 관리, 시민 중심 서비스 관리, 기술과 디지털자산 관리, 이익 실현전략 등을 2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성숙함'을 의미하는 3단계부터 인증을 부여하는데, 수원시가 국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SI는 수원시를 이끌어가는 이제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리더십과 추진력,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품질을 선진화하는 등 시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경우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우수성을 입증했다.

국내 인증은 지난해 9월 획득했다.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이 심사해 인증하는 국내 인증은 스마트도시를 위한 인프라와 재정 등에 대해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스마트도시로서의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지난해 2019년 시범인증을 받았으며 이를 발전시켜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인증 평가에서 수원시는 3등급으로 수원시는 혁신성 부문에서 공공역량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가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또 교통 및 안전



서비스,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기술 분야에서도 타 지자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스마트도시 국내·외 인증은 스마트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원시 노력의 결과물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2021년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2021~2025)을 수립해 '역사·기술·사람의 스마트 포용도시'를 표방하며 스마트도시 경쟁력을 향상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조선시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정조대왕이 만든 계획도시라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환경과 도시서비스는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스마트도시 역량을 펼쳤다.

◇편리한 도시생활 만들어가는 스마트도시 수원

스마트도시를 향한 수원시의 노력으로 시민들은 이미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다. 주차장이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시설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솔루션 도입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으로 각종 불편을 해소한 덕분이다.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도 스마트한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수원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과 내비게이션 업체시스템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원 시내 52개 공용주차장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수원시 통합주차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에서 주차장을 찾아 헤매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주는 스마트한 서비스다. 수원지역 어느 공용 주차장에 가면 대기 없이 주차를 할 수 있는지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고, 결제도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 티맵모빌리티의 협업으로 지난해 스마트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이를 공유주차 영역으로 확대하는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주차장을 활용하는 '공유주차' 사업에 시스템을 연계해 보다 편리하게 더 많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도시를 체감할 수 있다. 홈플러스 서수원점 앞, 수원 버스터미널 앞 등 10개소에 구축된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각종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도심 속 첨단 역할을 한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내부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 주고,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충전할 수도 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6개 지점 21개 횡단보도에 설치 완료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바닥에 신호등이 설치돼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신호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신호가 아닐 때 밟으면 음성으로 위험하다고 즉각 안내한다. 횡단보도 집중조명으로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안전을 위한 정책에 활용한다.

연무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어르신 AI 음성인식 서비스'처럼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도시 사업도 있다. 250명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AI 돌봄로봇 '다솜이'가 매일 말벗도움이 된다. 노래도 틀어주고, 약도 챙겨주며 24시간 공백 없이 정서 관리를 하고,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던 시기에 비대면 활동을 지원했다.

◇스마트한 행정, 정책 효과와 시민 공감 'UP'

스마트도시 수원의 다양한 정책은 시민의 생활 속에 녹아 있다.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해 도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ITS는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한 것으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수원시는 AI 기반의 스마트교차로와 감응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도심부에 적합한 신호시스템을 만들어 원활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스마트교차로는 올해

말까지 50개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AI기반의 영상검지기 교차로의 영상을 수집하고, 통행량 등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신호DB를 생성하고, 교차로별로 지체도를 산정해 신호 운영 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다. AI기반 감응신호시스템도 10곳에 구축한다. 영상검지기로 좌회전 차량을 감지해 차량이 없는 경우 좌회전 신호를 생략하고 직진신호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하게 신호를 조절한다. 불필요한 신호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로의 주방향 소통을 원활하게 해 도심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20년 수원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해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도 ITS 사업의 일환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급급차량이 최대한 빨리 병행에 도착할 수 있도록 수원시 도시안전센터에서 교차로의 신호를 제어,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소방차량에도 이를 확대 적용해 화재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진입을 안내하는 전광판을 설치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스마트한 방식을 활용한다. 수원시는 이같은 첨단 ITS 서비스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오는 2025년 ITS 아태총회 유치를 위한 후보도시로 선정, 가일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가 핵심 자원이 된 디지털 시대에 맞춰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면서다. 일례로 지난해 수원시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한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민원이나 요구가 많았던 곳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유동인구, 관공서 위치, 버스정류장 위치, 접속이력, 취약계층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하는 것이다. 여성안심택배 입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위치 등도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결정하며 시민의 욕구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과 대시보드를 구현해 각 부서에 시각화된 데이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만들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파악과 지역화폐 분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증은 수원시의 스마트시티 전략과 활동, 인프라, 거버넌스 등 스마트도시 운영 전반에 대한 역량을 검증받은 것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의미"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안산시, 민·관 합동 청렴 교육...'청렴 도시 안산' 위해 맞손

시간부공무원·안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임원과 함께 청렴 결의 다져



안산시는 지난 20일 시간부공무원과 안산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록구청 상록시민회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이민근 시장과 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안산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 소속 기관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산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중부지방공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환경재단, 경기테크노

파크, 안산YMCA, 안산교육지원청,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안산YWCA 등이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청렴교육은 ▲사제로 보는 상황극 공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교육 ▲청렴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조직 내부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고양시, 미래교육협력지구 협약으로 '미래인재 양성' 박차

고양특례시는 지난 3월 20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고효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란 자율·균형·미래를 지향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의 중심인 학교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의 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효순 고양교육지원청장은 "고양특례시의 모든 학생이 조화로운 성장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의 연계 교육활동을 더욱 내실 있고 다양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 전반에서 일어나므로 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고양특례시를 전국 최고의 미래교육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와 교육청은 올해 15개의 다양한 고양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펼치며 '미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매의 눈'으로 시민 안전 지킨다...관계요원 절도범 검거 감사패 받아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24시간 CCTV 모니터링 및 지하보도 안심비상벨 운영 등 다양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며 시민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관계요원이 절도범 검거에 기여해 지난 17일 구은영 안양동안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를 받은 관계요원은 3월 14일 오전 1시 45분경 CCTV를 모니터링 중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여러 차량에 접근하는 모습을 포착했으며,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 소지품을 절도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또 신고 뒤에도 범인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관계 활동을 통해 유흥주점 폭행 가해자 검거, 길거리 폭행 가해자 검거 등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응급환자 이송, 주차차 귀가 조치 등 시민 안전 활동도 하고 있다. 올해만(3월 19일 기준) 총 231건의 범죄 신고 및 시민 안전 조치 등이 이뤄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양해지는 범죄 및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오산시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 위한 민방위 교육 정상 운영

1~2년 차 대원 집합 교육, 3년 차 이상 대원 사이버교육 실시

오산시는 민방위 대원들의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오산시 민방위대는 333대 1만 8960명으로 편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중 1~2년 차 대원은 오는 3월 20~26일까지 집합 교육을, 3년 차 이상 대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집합 교육은 이번엔 명칭이 변경된 오산오색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되며 3월 20~26일까지 총 7일간 운영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6시까지, 오후 6시 30분~10시, 1일 3회 교육을 실시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일 2회 교육을 실시한다.

집합 교육은 민방위 제도, 화생방, 화재 예방, 응급처치, 가스 안전교육, 지진 등 4개 과목을 선정하여 총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사이버교육은 스마트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된다.

3~4년 차 대원의 경우 경보발령, 대피소 찾기, 풍수해, 감염병 발생, 행동요령 등 선택과목 8종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합쳐 1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헌혈 참여로 인한 민방위 교육이 인정되지 않으며, 2년 차 이상 대원은 민방위 실제 훈련 참여로 민방위 교육이 인정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변화, 미래 도시 오산 만들기에 늘 앞장서고 계신 민방위 대원들은 오산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3년 만에 민방위 교육이 집합 교육으로 실시되는 만큼 민방위 대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양시현/기자



통영시 기획예산실 직원들 미FDA지정해역 위생점검대비 해안변 정화활동 펼쳐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은 지난 3월 19일 한산면 추봉리 추원마을 일원에서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시행하는 미FDA 지정해역 위생점검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해안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금번 미FDA 지정해역 위생점검은 6년 만에 받는 점검으로 점검 강도가 어느 해 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예산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휴일을 반납하고 미FDA 지정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추원마을 해안변을 방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정화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해안변에 밀려와 그동안 수년간 쌓여있던 각종 폐그물과 낚줄, 폐스티로폼, 폐비닐 등 각종 해안변 쓰레기 약 5톤가량을 일제히 수거했다.

해안변 정화활동에 참여한 한 마을 주민은 마을에 고령자들이 대부분이라 그동안 마을뒤편 해안변 일원은 해초와 바위 때문에 미끄러워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휴일도 반납하면서 직원들이 청소해주 정말 고맙다며 따뜻한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해안변 정화활동에 참여한 김상만 기획예산실장은 "6년 만에 맞는 점검이기에 통영시 전 공직자가 솔선하여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금번 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오늘 봉사활동에 임해준 직원여러분의 작은 땀방울이 미FDA 점검을 무사히 마치고 수산 1번지 자존심 회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용준/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 창원제2국가산단은 경남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

시군별 비교우위를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가 조정자 역할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0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주 103만평 규모의 창원제2국가산단 조성 발표에 대해 "당초 창원대학 뒤편에 9만평 정도로 시작하려던 것을 도에서 산단의 확장성을 고려해 복면, 동읍 일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안한 것"이며 "100만평 넘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산단을 지정한다는 것은 과거 생각하지 못했던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창원국가산단 반 세기를 맞이한 시점에 창원 복면, 동읍 일원에 조성될 창원제2국가산단은 경남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10년은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국가산단과 함께 우주항공공정을 비롯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진해신항 등이 향후 10년 이내에 완성되면 경남은 다른 지역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물류의 비교우위에 세계 된다.

창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의 통

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도지사는 "머지않아 지방대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대학은 산업인력 공급 등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정부가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창원대와 경상국립대 통합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학지원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것이며, 경남도가 창원에 의대를 유치하려고 힘쓰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학 통합에 대해 대학과 논의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 15일 경남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나눴던 이야기를 소개하며 "모든 지자체가 첨단산업 육성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 도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4월에 남해안 발전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것과 관련해 경남의 관광개발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박 도지사는 최근 전국 무역수지는 12개월째 적자인 점을 언급하며 "경남의 무역수지는 5개월째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적 금융위기에 대비해 도내 기업의 금융문제 등 애로 사항이 없는지 파악하고 경제지표들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불방지 장비 활용에 대한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산 주변의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산불과 행락철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행정 지도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재현/기자

상주 샤인머스켓 이제는 고품질로 승부한다!



지난 3월 20일 상주시 모동면 서상주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에서 샤인머스켓 생산자 단체 대표, 행정, 전문가 등 40여 명이 모여 샤인머스켓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상주지역은 포도 주산지로서 특히 상주 중화지역(모동, 모서, 화동, 화서)은 해발 280m이상 고랭지로서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커 전경 최고의 특유의 향이 풍부한 고품질 포도 생산의 최적지이다. 현재 포도 재배 면적은 1,835ha(3,352호) 이고, 이 중 샤인머스켓은 955ha이상 재배되고 있다. 또한, 상주 샤인머스켓은 매년 수출량과 수출국이 늘어 현재 18개국에 1,005톤을 수출하는 등 상주 샤인머스켓 해외 수출 실적이 경북 1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샤인머스켓의 전국적인 생산량 급증과 이른 명절 특수를 위해 저품질 농산물이 유통되어 소비 자체가 위축되었고 특히, 상주는 고랭지 지역으로 11월 중순에서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소비위축은 곧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에 참여한 생산자 대표들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착화량을 줄이고 철저한 품질관리만이 소비자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품목별 협의회 구성을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제로 품목조직화연구소 김용철 소장이 강의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가조직화를 통한 농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것이고, 농협 등 유통조직에서는 경각 신고 관리, 생산량과 출하 예상량 예측으로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유통 기반 구

축이다.

이어 두 번째 전문가 강의로는 상주지역의 포도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앙청과 고길석 이사가 「급변하는 유통 트렌드와 소비자 인식변화」에 대해 소비자의 성향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모동백화명산포도회 김완진 대표는 "샤인머스켓 생산량은 올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므로 생산자 스스로가 불부터 착화량을 줄이고 수확기 당도관리, 출하기 품질관리 등 기본에 충실한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소속된 회원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강영석 상주시장은 올 초부터 「상주 주요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실천을 위한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그 내용으로 우선,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샤인머스켓 품위기준(중량, 당도 등)이 조제로 제정되어 있는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실상주」의 철저한 관리와 이를 위반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향상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정보통신 기술(ICT)을 융복합한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 통합마케팅 활성화, 출하 농산물 검사원제 운영, 농산물 순회수집 실시 등 철저한 관리로 농가는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고유가, 인건비 상승, 농자재값 상승으로 농업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자 단체 스스로 변화하려는 모습이 상주 농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행정에서도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유통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하였다.

김동현/기자

박형준 시장, "2023년, 부산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

부산시가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미래비전을 선보이며 2023년을 부산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다.

부산시는 오늘(21일) 오후 3시, 벡스코 컨벤션홀 3층에서 '빅 드림(Big Dream), 부산의 미래'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부산의 도시브랜드와 미래비전을 널리 알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부산에 대한 기대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해 전종범 국민의힘 부산시장 위원장 직무대행,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위원장 등 지역 정치계, 학계, 언론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구청장·군수,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 '부산 도시브랜드 선포식'과 2부 '부산 미래 비전 선언식'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인사말씀 ▲축사에 이어 ▲새 도시브랜드 탄생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 ▲유공자 시상 ▲새 도시브랜드 선포식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부산 비전 미디어댄스 퍼포먼스 ▲부산 비전 발표(부산시장) ▲부산의 미래 영상 상영 ▲부산 비전 세리머니 ▲기념촬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1부 도시브랜드 선포식'에서는 10만 명의 시민 의견이 모여 도시브랜드가 탄생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선보이고, 브랜드 개발에 기여한 시민참여단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이어서, 국내 최초로 색깔, 각도 등으로

3차원(3D) 입체화를 표현한 도시상징(CI) 영상을 상영하고, 부산의 자긍심을 담은 브랜드 슬로건(BI) 'Busan is good(부산이라 좋다)'의 조형물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기대를 모은다.

2부 비전 선언식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직접 '부산 비전'에 대해 발표한다. 박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한 ▲물류허브도시 ▲금융혁신도시 ▲디지털산업도시 ▲문화매력도시 ▲글로벌관광도시 등 5개 핵심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시아 최고의 시민행복도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등 부산의 미래 지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 전략을 보면,

◇ 물류허브도시
먼저 첨단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싱가포르,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해 나아가기 위해 ▲2030세계박람회 개최 전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개항 ▲첨단 배후단지 등 트라이포트 물류허브 구축 ▲가덕도 에어시티.해상도시.해상 멀티포트 조성 등 해양플랫폼 시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 금융혁신도시
해양·물류 산업을 육성·지원할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집적 및 BIFC 개발 등 금융중심지 완성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핀테크 기업 등 디지털 밸리 조성으로 디지털 금융 선도 ▲지산학 협력 고도화 도시 및 아시아 창업도시 육성으로 지산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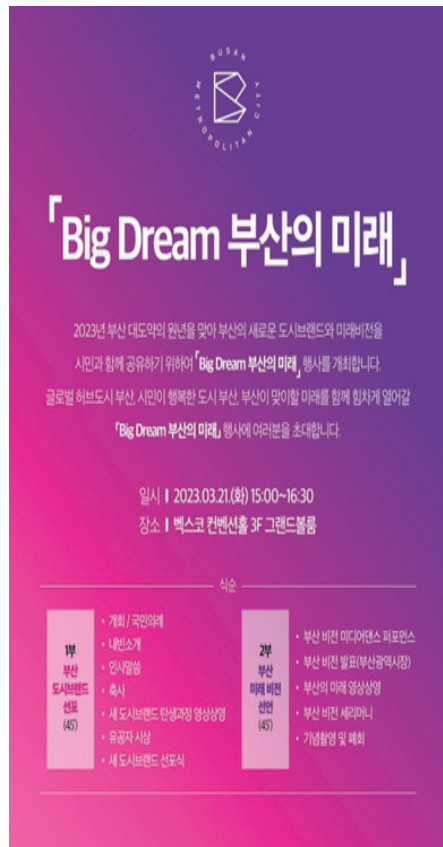
◇ 디지털산업도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정보통

신기술(ICT) 융합의 디지털 산업 육성 등 미래형 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디지털 신산업 육성 ▲항공정비산업(MRO) 및 도심항공 이동수단(UAM) 산업 육성, 파워반도체 밸류체인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매력도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영상 콘텐츠, 생활 스포츠 선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오페라하우스, 세계적 미술관 등 최고급(하이엔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영화·영상·게임 혁신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콘텐츠 육성 등 케이(K)-컬처 선도 영화·영상 콘텐츠 도시 조성 ▲생활문화, 지역예술(인)진흥, 생활체육 기반시설(인프라) 및 저변 확대 등 문화·체육 일상생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글로벌관광도시
부산의 도시 특성과 강점을 살린 세계적인 관광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연계, 지역역사·문화 자원 연계 관광콘텐츠 집중 육성 등 글로벌 관광콘텐츠 선도 ▲신 해상관광교통 도입, 마리나 거점 및 국제크루즈 허브도시 조성 등 해양레저 거점도시 조성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의료·웰니스·위케어산업 관광 육성 등 지역 특화 관광벨트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대행사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정책 부스 운영을 통해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현지 실사를 앞두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



한 열기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3년 부산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부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미래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부산이 맞이할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도시브랜드 선포는 '부산 대도약'에 대한 다짐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Busan is good이라는 의미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산시의 새 브랜드가 부산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송준진/기자

울진군, 민원 소통의 날 '군민 섬김데이' 운영

군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정 펼쳐

울진군은 오는 23일부터 섬기는 군정, 화합 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 소통의 날 '군민 섬김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해읍, 기성면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 섬김데이'는 선제적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 접점 현장을 군수가 직접 찾아가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으며, 충분한 민원 상담을 위해 담당 부서장(팀장)이 함께 배석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원 상담을 끝마친 뒤에는 직접 마

회회관 등을 찾아가 주민들을 살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군정 주요 현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민원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손병복 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민 섬김데이'를 통하여 군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직접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군민들의 고통 및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영덕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신속한 주민대피, 첨단기기 활용한 초기대응 높은 평가 받아

영덕군이 지난해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범국민적 훈련으로, 지난해 훈련에는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00개 기관이 참여했다.

영덕군은 지난해 11월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지진해일 내습에 따른 복합적인 재난 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을 실시해 신속한 주민대피와 대응, 뛰어난 피해복구 능력을 확인시켰다.

해당 훈련엔 16개 기관, 5개 민간단체 등 500여명이 참여하고 각종 건설기계와 장비들이 동원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현장훈련의 실질 대응력을 향상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재구축했다.

또한 드론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상황전파가 이뤄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원활히 하고 지휘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철성 안전재난건설과장은 "훈련에 참여해주신 모든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더 안전한 영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홍준표 시장,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초대규모 사업 차질 없이 준비하라!

공항 및 대구미래50년 사업을 지원할 관련 조직 개편 준비 지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3월 20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신공항특별법이, 3월 임시회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대구미래50년 사업과 함께 군공항 이전 및 후적지개발, 공항연결 SOC사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의 푸른신선술 조성관련 보고를 받고 물과 숲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대구대표 도시 공원으로 조성할 것과 수중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환경수자원국에는 산불방지대책 보고에 덧붙여 소나무재선충 방제 조치에 대해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의 대구 군공항(K2) 내 미군시설 이전 추진보고에 대해 신공항특별법을 3월 임시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특별법 통과 즉시 관련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할 것과, 신공항 관련 사업은 대구미래50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초대규모 사업인 만큼 대구시 행정력이 총력 지원될 수 있도록 공항건설과 후적지개발, 공항연결 SOC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



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실·국에서 사업 계획 및 추진에 있어 비현실적이거나 희망하는 바를 입안 및 보고하는 것은 지양하고, 현실에 기반을 두고 객관적인 팩트와 실현가능성 있는 비전을 설정하되, 전력을 다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공모, 경상북도 영양군 선정

경북 최초 '영양군' 선정, 2023년부터 국비 2억원씩 총3년간 6억원 지원

영양군은 질병관리청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총 12억(3년간) 사업비 중 국비 6억원, 도비 1억 8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이번 사업은 전국 5개 지자체를 선발하여 지역 내 소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실천적 지역 보건사업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자세사업 전환과 전국적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영양군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및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공유자료를 토대로 6개월간 건강결정요인 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인식율은 가장 낮고 비만율, 흡연율 등은 높게 나타난 수비면을 대상지역으로 선택하여 추후 3년간 수비면 건강형평성 확보 및 건강수명연장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에는 사업수행을 위한 건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비면 전주민의 건강상태 파악 및 진단을 통해 타지역과의 격차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문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41만 인구 회복 민·관 공동 대응 !!

'미래세대가 희망이다' 2023 구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심의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20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기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출범하는 제3기 인구정책위원회는 김호섭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분야별 전문가 9명과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지역 활력을 위한 인구정책 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분야별 인구 정책 강화를 위해 가정·보육과 출산, 일자리, 주거, 청년, 고령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중심 매력도시 재창조, 아이중심 인재도시 재창조, 능동적인 신중년시대 준비, 활력



있는 신중년시대 준비, 인구대응 행정제도 혁신의 5대 전략과제별 인구정책 주요사업을 심의하고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한 위원들은 구미시 인구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 41만 인구 회복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호섭 부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구미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인구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자문을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경북교육청, 22년간 난치병 학생들에게 의료비 지원!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22년간 난치병 학생 1,399명에게 116억 3천1백만 원을 지원해 난치병 학생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년간 모인 성금으로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치병 학생들을 계속 돕고 있다.

2001년부터 실시한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사랑과 봉사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수시로 지원 신청을 받아 매달 1회 대상자에게 결정 안내해 난치병 학생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07년 방송동신고등학교 재학생(만 18세까지) 지원 △2008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소아 당뇨병 환자 치료비 지원 △2010년 백혈병, 저신장 학생 성장호르몬 치료비 지원 △2019년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 △2020년 1형 당뇨병 인슐린 약제비 지원 △2021년 1형 소아당뇨학생 연속혈당측정기 및 소모품비 연간 12만 원 한도 지원 △2021년 신규 난치병 학생 선정 시 지원 시점을 지원대상자 선정 당시 입원 중인 학생의 경우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 소급 지원하는 등 점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원하는 등 점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난치병 학생으로 선정되면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없으며, 부족 시 증액해 완치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비 의료비 지원사업 또는 타난치병 질환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비 청구 순서는 보험, 보건소, 교육청 순으로 이중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보호자는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체육건강과/자료실/2023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신청서식 및 구비서류)에 탑재된 신청 서식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 보건(담당)교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01년부터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들이 의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난치병 학생들이 완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울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월 17일 울릉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울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읍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참석하여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2023년 연간 운영계획 등 현안을 주제로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후원단체에서 울릉주민을 위해 온정의 후원을 했는데, 울릉청년회의소(ICJ)

에서 울릉읍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백만원 상당의 울릉상품권을 후원했고, 울릉청년단에서는 양곡 50포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느끼게 했다. 후원금품들은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또는 사각지대 놓인 어려운 가구에 울릉 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릉청년회의소(ICJ)는 2022년 울릉읍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희망재능나눔 협약을 맺은 단체로 지속적으로 후원 및 재능기부에 동참하고 있

다. 최동일 민간위원장은 "다양한 단체에서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참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울릉군민을 위해서 울해도 울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속적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하규 울릉읍장은 "이제 2023년 추진해야 할 사업에 힘을 모아, 나눔의 향기로 모두가 행복한 울릉읍을 만드는데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정현중·조강재/기자

윤경희 청송군수,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 참여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3월 17일 청송군 산불진화대원 등 100여 명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산불발생이 가장 높은 봄철, 군민들에게 산불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각금지, 입산 시 산림 내 화기소지 금지 등을 포함한 각종 금지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군은 '산불예방 및 상황관리 총력 대응'을 위해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격상, 경상북도지사의 도내 소각행위 금지 행정명령발령 등 삼급기

관 대응 단계에 발맞춰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여 실과별 직원 1/4이상 비상근무 실시를 통한 계도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해 산림보호법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은 산림이 82%정도로 이루어진 명품 산림도시인 만큼, 건조한 이 시기에 민·관이 함께 하나 되어 '산소카페 청송군'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SVB 파산 대응과 경제산업분야국비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

경북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등 경제산업국 유관기관과 현안 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17일 경북경제진흥원 회의실에서 도 및 경제산업국 소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제산업국 유관기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통상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벤처기업 대출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산업 분야 2024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경제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SVB 파산이 지역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두 기관에서는 이번 SVB 파산사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커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는 지역 벤처기업이 이번 사태로 인해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 조달이 위축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 영향으로 향후 동남아 등 세계에 진출한 우리 지역 벤처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경북도는 SVB 사태로 당분간은 지역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동해 해외 진출 지역 벤처기업 등을 포함한 지역기업 피해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발굴한 국비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오늘 제안된 신규사업은 현재 도로교통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미래차 부품 화재 안전 신뢰성 인프라 구축, 한국형 헴프 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경북 바이오생명



핵심소재 육성사업 등 총 12건으로 소재부품과 첨단 바이오 분야 등 신산업 분야에서 집중 발굴됐다.

경북도는 신규사업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부정책과 부합되도록 사업보완,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 최종적으로 국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번에 안동 바이오산단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만큼 식물백신, 헴프, 동물용의약품 등 바

이오 분야의 국비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공조해 SVB 사태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응한 국비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드림스타트, 삼성전자와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로드 성금 전달



봉화군 드림스타트는 18일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의 지역 내 위기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사랑의 나눔로드' 성금 500만 원을 상운면 운봉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 아동 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사례관리사가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에 사례지원 신청을 통해 이뤄졌으며, 지부 내부에서 1차 심사 후 기입에서 2차 내부 회의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됐다.

'사랑의 나눔로드'는 경북지역 내 위기가정 아동의 생계비 및 교육비, 재능 특기비, 난치병 아동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역 내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스마트시티 사내에서 임직원들이 직원증을 스마트기기에 터치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1건당 기부금 1000원이 끊여에서 공제되는 시스템이다.

후원받은 아동의 모친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도움을 주셔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봉화군 드림스타트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힘써 주는 삼성 전자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나눔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안동시, 산불예방 위해 소각행위 집중단속

▶ 시청 공무원 1,038명 담당마을 지정 집중단속 실시 ◀

안동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연간 산불의 대부분은 봄철에 발생하며, 주요 발생원인은 소각산불(25%)과 입산자 실화(21%)로 전체의 46%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주요 원인인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1일부

터 안동시청 공무원 1,038명을 864개 마을에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해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및 산불예방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및 경북도에서도 산불 기동단속반을 편성에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3년 이

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점점 대형화 추세에 있어 산불 예방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므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제1회 추경예산 650억 증액 편성



의성군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650억 원으로 확정하여 군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으로 2023년 총 예산 규모는 7,410억 원으로 본 예산 6,760억 원 대비 9.6%가 증가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재원 증가사항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했으며, 고물가 지속에 따른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대상 난방비 지원 등 긴급 민생안정 지원과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위한 의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그리고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바이오밸리일만산업단지조성,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자연재해 위험개선허리(팔동, 이두지구)정비 등을 편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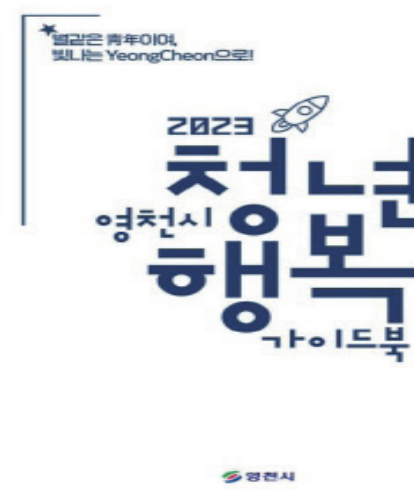
군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군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4일 최종 확정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물가와 에너지요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했다"라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영천시, 한눈에 볼 수 있는 '청년행복 가이드북'발간!

일자리, 창업, 주거, 결혼·출산, 자산형성 및 복지 등 다양한 청년지원책 담긴다!



영천시는 청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년행복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영천시 청년행복 가이드북은 올해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을 종합해 제작했으며, 분야별 청년 개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정책을 구분했다.

다양한 청년정책을 한권의 책으로 만든 청년행복 가이드북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청년 유관기관 등 청년과 밀접한 기관에 배부해 청년 개인은 물론 청년 대상으로 정책홍보,

취·창업 등을 위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천시 청년정책은 시 홈페이지, 청년e플랫폼(경북청년포털), 영천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청년이 행복한 도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영천시 청년정책을 종합한 청년행복 가이드북이 청년들의 진로선택과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이 될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영주시, '영주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영주시가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영주 지역 외 거주자로 최소 3박, 최대 6박 영주여행을 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조건은 △관내 숙박업소 이용 △관광지 또는 체험프로그램 총 5개소 이상 이용 △신문, 방송 등 오프라인 매체 또는 SNS,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영주여행 #일주일살아보기 #영주가볼만한곳 해시태그를 포함한 여행후기 및 홍보 콘텐츠 게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숙박비 3만원(1인 1박) △체험비 2만원(1인 1일, 식비포함) 한도 내 실비로 지원하며, 1인 추가 시마다 △숙박비 1만원 △체험비 5천원 추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1인 6박 기준 △숙박비 18만원 △체험비 12만원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여행 7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여행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교완 관광개발담당장은 "숨은 명소와 멋을 알릴 수 있는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계기로 영주가 머무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진안군, 깨끗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그린빌리지사업 추진

12개마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오는 28일까지 2023 그린빌리지 사업 추진 마을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대상마을은 진안읍(중앙1동)과 용담면(호계2), 상전면(후가막, 중기, 문화), 백운면(원촌), 마령면(원평지), 부귀면(대곡, 방각, 오복), 주천면(중리, 어자)마을 총 12개소다. 현장설명회는 마을만들기와 공동체의 이해, 진안군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 보조금 집행과 정산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은 5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희의를 통해 마을의 자원과 현안문제 등을 발굴하고, 직접 사업 계획서 작성과 사업추진, 보조금 집

행 및 정산 등의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대규모의 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2년까지 진안군 318개 마을 중에서 247개 마을이 그린빌리지사업을 진행했으며, 매년 12개 마을에서 경관과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화단과 꽃길 등을 주민들이 직접 조성하여 깨끗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마을로 가꾸고 있다. 한편 그린빌리지 사업 추진 이후 오는 9월 우수마을 선정을 통해 2024년도 2단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전주시 '발 빠른 현장 행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덕진구 화전동 신정마을의 오랜 숙원인 농로 개설 및 수로정비 완료



화전동 애플망고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화전동 신정마을에서 만경강 제방을 잇는 농로가 없고 주변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화전동 신정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만경강 제방도로에서 마을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농번기 농기계 운행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농로 개설 및 수로 정비에 신속히 처리했다. 시는 이번 농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로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사고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정마을 주민 조상호 씨는 "우범기 전주시장님의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어서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세권 전주시 농축산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군산시, 말랭이마을에 봄이 왔어요



말랭이 마을의 작가들과 마을 주민, 관광객이 모여 하나가 되는 골목 잔치가 열린다. 군산시는 오는 25일 말랭이 마을에 올해 처음 진행되는 골목 잔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목잔치는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신흥동 말랭이마을 일원에서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 총 8회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부터 생소한 말랭이 마을은 최근 군산의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곳으로 산비탈, 산봉우리 맨 끝이라는 뜻을 지닌 '말랭이'라는 이름처럼 월명산 자락의 끝 산비탈에 서로의 등을 기대고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옛 모습을 간직한 곳이다. 좁은 골목을 돌아가면 모던하게 꾸며진 현대적 건물들이 조화롭게 깃들여 있어 어느 것 하나 모나지 않게 시대를 품고 있는 풍경이다. 꼬불 꼬불길을 따라 말랭이마을을 둘러보자면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그때의 추억을 전시키는 추억전시관이 있고, 마을 어르신들의 삶을 이야기

하는 이야기마당이 있다. 골목 잔치가 진행되는 이야기마당 및 책방에는 현재 입주되어 있는 작가들을 만나러 온 관광객들이 있다. 골목 잔치에는 기존 각자의 공간이 아닌 한 공간으로 이동해 말랭이마을에 거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마을에 활기가 느껴지면서 토박이 마을 어르신들은 이들의 입주를 반기고, 그들과 함께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청년 마을 술 익는 마을을 계기로 시작된 마을 어르신들의 술 빛는 주말이다. 골목 잔치뿐 아니라 매주 운영되는 술 빛는 주말은 말랭이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말랭이마을 골목잔치에서 봄을 느끼고, 옛 추억도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훈훈한 정도 느낄 수 있는 힐링 체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창방문 '함께혁신! 함께성공! 새로운 전북' 소통

"세계유산 6관왕 달성해 글로벌 관광도시 성공신화 쓰자"고 강조

고창군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 특별한 전북시대, 고창군과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도정과 군정을 공유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20일 오후 고창군을 방문하고 1일 만에 고창군수로 위촉돼 간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청원과의 만남, 상하농원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발전 및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간부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비롯해 심덕섭 군수님과 고창군이 이룬 많은 성과를 축하드린다"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고창군은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도비 지원 ▲고창 진입관문 경관조명 설치 ▲람사르 운곡습지 생태탐방로 조성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어 청원과의 만남에서 김 지사는 "전라북도가 가장 경쟁력 있고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농생명과학 문화관광인 데 여기에 가장 특화된 곳이 바로 고창군이다"며 "북부자·수박의 도시 고창군이 전라북도의 농생명 혁신을 이끌고, 세계유산 6관왕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함께 성공신화를 써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상하농원을 방문해 스마트팜에서 사계절 딸기를 수확하고, 체험목장에서 먹이주기 체험을 펼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상하농원은 생산과 제조·가공, 문화 체험과 힐링·관광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대한민국 6차 산업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며 "고창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인 상하농원이 더욱 발

전해 지역농가들의 판로를 돕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여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하농원 류영기 대표는 강선달 저수지 주변 데크설치로 상하농원 관람 동선 확대와 차세대 스마트팜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 관계자 등 도민과의 대화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타 지역으로 떠나는 대신 고창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며 혁신해 나가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청년거점센터 조성, 합성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전북의 청년들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덕섭 고창군수는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김관영 지사께서 고창군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도정의 목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창군이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호남고속도로에서 올린 '2023 익산방문의 해' 홍보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 여산휴게소에서 '봄에는 익산여행 어떠세요~'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은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을 직접 찾아가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교통요충지 익산의 장점을 살려 17일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에서 봄맞이 여행객을 겨냥해 익산 대표 봄 관광지 및 행사를 알렸으며, 특히 최근 인기 높은 '글로벌문화관'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휴게소 방문객들에게 익산의 대표적인 인스타 성지인 아가페정원에 활짝 필 채송화, 영산홍 철쭉 등 봄꽃 소식을 전했다. 사진 자료를 통해 유럽식 정원인 포털가든, 쪽 뽕은 메타세쿼이아까지 '인생샷'맛집임을 강조했다. 상춘객들은 봄 축제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다. 국내 대표축제로 자리잡은 익산문화제야행과 익산보석대축제 정보를 적극 전달했다. 또 익산 벚꽃명소도 함께 홍보했다. 익산문화제야행이 진행되는 왕궁리 유적은 왕궁리 오층석탑과 함께 흐드러지는 벚꽃나무를 볼 수 있으며, 만경강으로 꽃눈을 간다면 만경강문화관 산책코스, 자전거길까지 여러 코스로 꽃내음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최초로 세워진



세계문화 전시·체험 공간 '익산글로벌 문화관'을 적극 알렸다. 다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세계문화 전시 관람은 물론 전통의상체험, 악기체험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현장학습 패키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행다니기에 가장 좋은 봄날에 익산여행 하면서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란다"며, "2023 익산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봄맞이 여행시즌을 앞두고 더욱더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김제시, 양극화 시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김제시는 3월 23일 제658회 지방선거 아카데미를 맞이하여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를 모시고 '양극화 시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정호 교수는 연세대, 동 대학원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現 명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손에 잡히는 경제, 삼프로 TV, 경제의 신과 함께 등 유튜브 채널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주로 국가 정책 관련 활동을 많이 하시고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 3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경제학자이며 주요 저서로는 '아주 경제적인 하루', '이코노믹센스' 등이 있다. 이번 강연은 심각한 양극화 흐름과 경제전망을 알아보고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4월 둘째주 목요일(13일)은 권일용 프로파일러를 초청해 '프로파일러의 범죄 추적기'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선거아카데미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별도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며 참석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비대면 참여 방법으로 강연 영상이 김제시 사이버학습센터에 업로드된다.

김현태/기자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문화·관광·체육 현장 종사자 100인 대담회 호응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라는 행사가 열린 지난 17일 오후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다목적관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현장 중심의 완주 문화와 관광, 체육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사업, 정책 등을 주민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유희태 완주군수가 답하는 '대담회'의 장(場)이었다. 한 참석자는 "생활문화예술인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력 있게 건의했고, 돌레길의 확장설 등 시설개선과 보안이 필요하다는 생활SOC 건의도 쏟아졌다. 관광객 유치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먹거리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전문적인 식견부터 자전거길 확보, 문화예술사업의 전문 컨설팅제 도입, 소규모 공연장 개설 등 설득력 있는 대안도 제시됐다. 상반면에 산다는 한 참석자는 "저수지 인근에 용정 한옥마을이 있는데 저수지와 한옥마을을 엮어 관광 벨트화하고,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하면 더 좋은 관광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문자 1인당 100초의 발언이 허용



된 이날 대담회에서는 삼례문화예술촌 전시와 관련한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는가 하면 관광사업 공동체에 대한 지원, 봉수대 복원, 웰니스 관광지 활성화, 만경강 철새 보호, 만경강 랜드마크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답변에 나선 유희태 완주군수는 "문화예술인과의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완주군이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지, 행복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완주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전제, "인구가 늘

고 있고, 특히 청년 인구가 증가세에 있다"며 "늘어나는 귀농귀촌인 등이 완주에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지한 분위기에 호응도 나왔다. 대담회가 끝난 후 한 참석자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닐까 의구심을 가지며 행사장에 참석했는데, 질문과 답변이 너무 진지하고 성의가 있어 만족스러웠다"며 "주민들의 이야기가 행정에 적극 반영된다면 완주군에 더욱 애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광주광역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국제설계 공모에 덴마크 어반 에이전시 '모두를 위한 도시' 선정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 국제설계공모에서 덴마크 건축설계회사 '어반 에이전시'의 작품이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을 위한 국제지명초청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어반 에이전시(City For All)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제해성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국내 권위있는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 국제지명 설계공모에 출품한 국내외 8개 작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

당선작 '모두를 위한 도시(City For All)'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 생활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 '15분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을 적극 반영했다.

또 'Green Network'로 명명된 내부 순환로를 통해 주요 거점시설을 연계하고 단계적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까지 두루 갖춘 계획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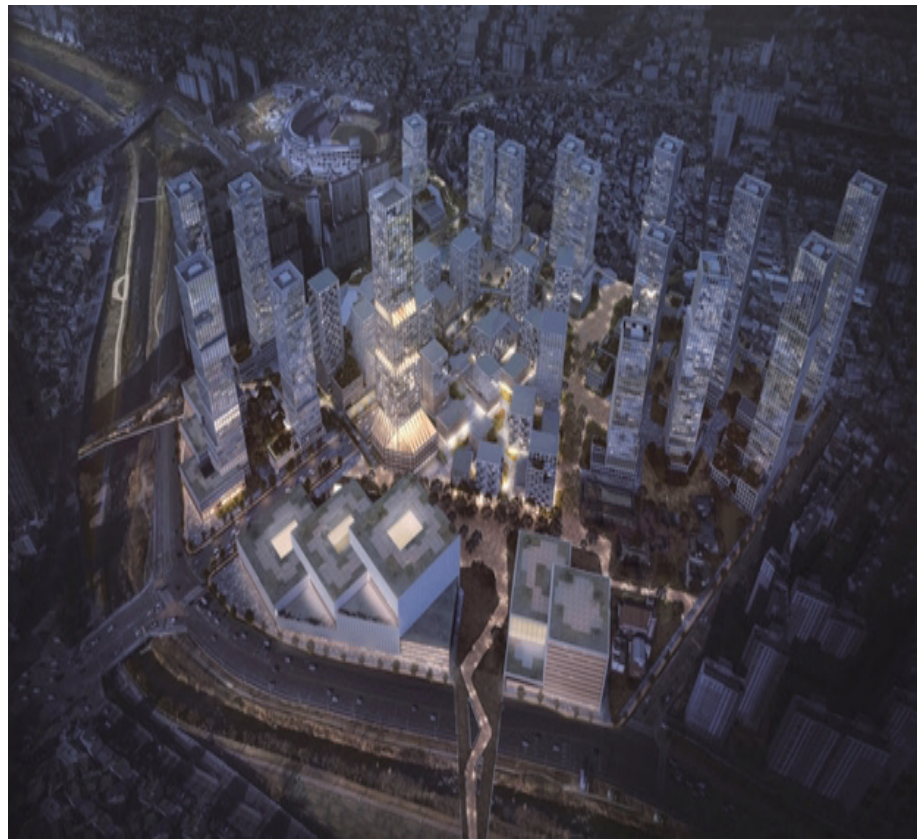
설계공모 당선자에게는 랜드마크 타워의 계획설계권이 부여되고, 나머지 초청사에는 1억원의 참가보상비가 지급된다.

광주시는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결과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사업계획에 반영해 오는 7월까지 부지개발 사업자인 (주)휴먼스홀딩스피에프브이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 당선작을 포함한 출품작(총 8건)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24일까지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김중호 시 도시공간국장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로부터 다양한 도시설계안이 접수됐다"며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창출과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공간계획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 당선작 조감도

해남군 "350년 매화나무 환한 꽃등 달았네" 천년고찰 해남 대흥사·대흥매만개



땅끝해남의 천년고찰 대흥사의 고매에 매화가 환하게 불을 밝혔다.

해남군 대흥사 적목당 앞 대흥매(大興梅)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리며 산사를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우고 있다.

대흥매는 수령 350년 가량으로 추정되는 백매화 나무로 초의선사가 특히 사랑하였다 하여 초의매라고도 불린다.

다성(茶聖) 초의선사(1786~1866)는 대흥사 13대 종사로서 선다일어(禪茶一如)의 사상을 주창하며 조선 후기 차문화의 흥을 이끌었다. 당시 직접 창건한 대광명전(동국선원)에 거처하던 초의선사는 1811년 일어

난 천불전 화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매화나무를 대광명전 옆 적목당으로 옮기고 아껴 보살폈다.

지금에 이른 대흥매는 어른 한아름 크기의 고목으로 기품을 뽐내고 있다.

매년 봄이면 환한 꽃등을 달고, 천년고찰에 빛을 밝히고 있다.

천기철 사진작가는 "대흥매는 특히 향기가 짙고, 꽃이 눈부실만큼 세하얀 빛을 띠고 있어 호남 5매로 꼽히는 이들도 많다"며 "연리지 등 유명한 나무들이 많은 대흥사이지만 초의선사와의 인연 때문에 대흥매를 사랑하는 방문객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윤선애/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순천 산불 인명피해 없이 잔불 정리 철저 당부

민·관·군 공조로 야간산불 조기 진화 모범사례...관계자 격려순천시 별량면 산불현장 방문 사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순천 별량면 산불 진화 현장을 방문해 민·관·군 공조로 주불을 조기 진화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인명피해 없이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산불은 18일 오후 9시 31분께 순천 별량면 금치리 제석산에서 발생했다. 늦은 밤에 발생해 초기에 진화행기가 출동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풍으로 진화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산림청 특수진화대와 순천시 전문방진화대 및 직원들이 밤새 확산 저지를 위해 방화선을 구축했다. 그 결과 19일 오전 9시 30분께 주불을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

특히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전남소방, 경찰, 31사단 95연대, 순천시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하고 철저한 공조체계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또한 산림경영과 산불 진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임도가 방화선 구축에

큰 힘이 돼 한우 200마리를 사육하는 인근 축협 축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이처럼 여러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와 방화선 구축, 임도 활용 극대화 등 총체적인 통합 진화 대응으로 민가 시설 피해 없이 19일 오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전남도는 또 진화행기 16대, 진화차 7대, 소방차 13대, 진화장비 500점, 진화인력 758명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조기 진화에 성공한 것도 모범적인 야간산불 진화 모범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강풍과 야간 산불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탄탄한 공조체계와 총력대응으로 밤새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진화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끝까지 민가 피해나 인명사고 없이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해명/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을 방문, 순천시 산불현장지원본부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으로부터 산불진화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나주시, 여성농업인 건강 챙긴다...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 근골격계질환 등 10개 항목

나주시가 고된 영농 작업으로 각종 질환이 염려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챙기기에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51세부터 70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시는 5월부터 해당 연령대 여성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검진은 '농약 중독', '근골격계 질환', '심혈 관계', '폐활량'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 농작업 관련 질환 조기진단과 전문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홀수연도 출생자는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작

수 연도에 태어난 여성농업인은 특수건강검진만 받으면 된다.

특수건강검진 지원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된 농작업과 가사 노동으로 지쳐있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구례군, 상반기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관리 실시

전남 구례군은 상반기 자살률 증가에 따라 3월에서 6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구례군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31.5명으로 전국 26명, 전남 30.2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0년 가까이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

이에 자살 위험이 있는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안전망 형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9개소와 '동네의원 마음이음', 약국 11개소와 '생명사랑약국', 번개탄 판매업소 20개소와 '생명사랑 실천가게', 구례병원 응급실과 '생명 이-음'사업 협약을 맺어 자살 시도자와 위기자를 발견하고, 전문기관의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자살 예방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광의면 18개 마을 이장과 협약을 맺어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수료 후 자살 위기자를 발굴·연계하고 주 1회 마을방송으로 '생명사랑 고충'을 송출했다.

이 외에도, 구례읍 8개소, 산동면 2개소, 광의면 1개소, 용방면 1개소 총 12개 자살 위험 장소에 '자살예방로라이트'를 설치하여 생명 사랑 상담 전화 1393을 안내하고, 자살 집중관리지역 및 빈발장소에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문제, 가족 위기,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현/기자

장흥군의회, 장흥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전 펼쳐

장흥군의회는 지난 3월 14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와의 상호 교류 협력에 이어 3월 16일 국회 방문을 통한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응원 협조와 17일에는 서울 용산역을 찾아 용산역 이용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 참여로 내 고향 장흥을 응원해주세요!" 현수막을 들고 기부제 동참을 독려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의원들은 무산강, 장흥 한우로 만든 육포,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표고버섯 등 다양한 농·수·축·임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장흥몰 모바일 쿠폰과 명품귀족호도 등 다양한 장흥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홍보를 통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기부 행사에 동참해 주길 바라며 캠페인을 펼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주



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는 제도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의 각종 사업 등에 널리 운용되어 지역 균형 개발은 물론 주민 복리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왕윤재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며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군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화순군, 희망2023나눔캠페인 우수시군 감사패 수상

화순군은 '희망2023나눔캠페인'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16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서는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오세현 모금팀장 등 모금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감사패는 희망2023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지역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웃사랑 성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여 나눔문화 확산과 행복 공동체를 열어 가는데 기여한 공이 큰 지자체에게 전달하는 상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화순군은 전년도 캠페인 모금액 대비 146%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군민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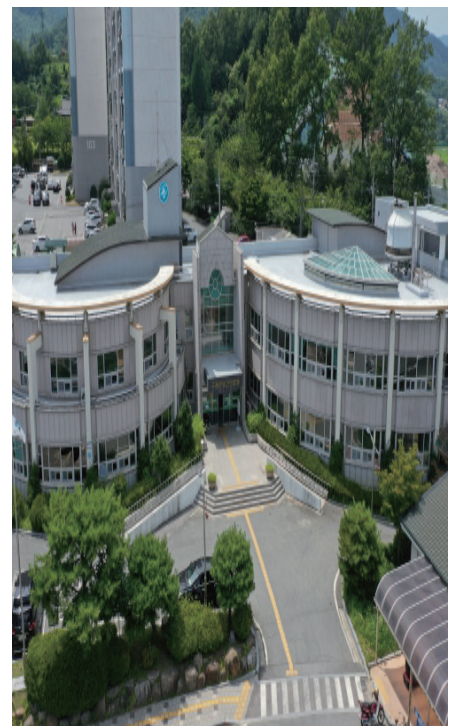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 행정을 펼친 화순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각계각층의 개인, 기업, 사회단체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감사패를 받게 됐다"며 "어렵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복지 화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모아진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및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윤경호/기자



충남도, 내년 국비 '10조 시대 개막' 힘모은다

지역 국회의원 정책설명회...국비 확보 대상 사업 설명·현안 협의

출범 6개월 만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센충남'이 내년 국비 10조 원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문진석·박완주·이정문·정진석·장동혁·이명수·강훈식·성일중·김종민·이기구·홍문표 의원과 김태흠 지사, 김기영 행정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설명회는 도 간부 소개, 도정 현안 및 주요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설명, 지역 현안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 30건과 △현안 13건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신규 사업으로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연결 △장항국가습지복원 사업 △충청남도 스마트그린산단 축진 사업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등 15건을 설명했다.

계속 사업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건설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대산~당진 고속도로 등 15건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충남혁신

도시(내포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지역의대 설립 유치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등을 꺼내들며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총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정수소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사업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지

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에는 목표를 더 높여 10조 원으로 설정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변함 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 신규 사업을 대거 담아내며 올해 9조 589억 원의 국비를 확보, 충남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힘'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정부예산은 도정 사상 최대이자 9조 원을 처음 넘어선 것이며, 지난해 최종 확보한 8조 3739억 원보다 6850억 원(8.2%) 많은 규모다.

내년에는 국비 1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등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민선8기 가치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기 추진 △수시 배정 사업 정상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반영 사업 관리 등도 기본 방향이다.

최정근/기자

2023년 충청북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김 지사, "민·관·군·경·소방 합심하여 튼튼한 안보의식으로 흔들림 없는 통합방위태세 확고히 할 것"



충청북도는 3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통합방위 주체인 민·관·군·경·소방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2023년 충청북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통합방위회의는 코로나 19 등의 상황으로 3년 만에 개최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열린 것이며,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민·관·군·경·소방, 시·군·관·계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충청북도 등 4개 기관별 보고, 주제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통합방위회의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안보의식으로 그동안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선 민·관·군·경에서 선발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북한 대남 위협 전망, 기관별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발표 등 우리 지역의 안보상황 공유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하고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의 계기를 마련했다.

고정화/기자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8일 제 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의 시 논의됐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대비 주민보호대책, 테러·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역량강화 방안 등에 대한 주제토의를 통해 이날 참석한 통합방위위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심도 깊은 토의와 공감대 형성을 이뤘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의의장)는 "충북의 안보와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엄중할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민·관·군·경·소방이 합심하여 확고하고 튼튼한 안보의식으로 흔들림 없는 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북도 통합방위회의는 국가방위요소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통합방위회의를 연1회 개최하고, 매분기 1회 통합방위협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동해시, 등산로 신설 '무릉권역 관광벨트 구축' 본격화

동해시가 국민관광지 제1호이자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무릉계곡에 등산로를 추가 신설하는 등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 산악관광 개발을 통한 무릉권역 관광벨트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비용 여가 활용을 위해 도시근교 생활권 산행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무릉계곡의 비경을 관람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여건 조성을 위해 17억여원을 들여 무릉계곡 일원 등산로 2개 노선을 신설하고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두타산성길 기존 등산로 0.8km 구간을 정비하고 용추폭포 등산로 0.2km 구간을 신설하게 된다. 이어 내년까지 피마름굴 일원 등산로 2.66km 구간을 추가로 신설해 무릉계곡의 숨은 비경을 관람하기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등산객 방문을 유도하고자 대내외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등산로 신설 시 우려되는 무릉계곡 숲길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보호구역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 등 유관기관 인·허가 협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무릉계곡은 지난 2020년 벚꽃바위전망대 개방, 두타산 협곡 마천루까지 4.7km 전 구간이 개방되면서 전국의 등산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는 등 각광을 받고 있다.

심규연 시장은 "지난 무릉계곡 벚꽃바위 산성길과 두타산 협곡 마천루 개방은 무릉별유천지, 무릉간강숲 오션터당과 함께 무릉권역 관광벨트를 착실히 완성해가고 있다"며, "앞으로 동해시는 도심관광, 해양관광에 이어 산악관광까지 모두 갖춘 4계절 체류형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조길형 충주시장, 발전적인 변화 만드는 공직자 되어야!!

강을 활용해 문화·관광·생태환경·건강 도시의 거점 마련할 아이디어 주력

조길형 충주시장이 발전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20일 현안업무회의에서 "행정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들의 긍정적인 지지와 협업까지 이끌어내야 한다"라며 "각 읍면동장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호연 달천동장이 최근 정보리마을을 조성하며 아름다운 풍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달천동 달래강의 정원길 조성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발표를 청취한 후 "달천동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훌륭한 내용"이라며 "강을 활용해 지역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충주는 수주팔봉, 달래강, 중앙담, 목행동, 목계나루 등 한강의 절경을 간직한 명소임에도 시민들조차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며 "외곽에 치우쳐 있는 충주의 강을 문화·관광·생태환경·건강 도시 충주의 거점으로 키울 아이디어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함께 진행한 그린수소 지식공유를 위한 특강과 관련해 "서충주에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 스마트시티를 그린수소도시 충주의 이미지를 각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조호연 달천동장은 "달천동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훌륭한 내용"이라며 "강을 활용해 지역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충주는 수주팔봉, 달래강, 중앙담, 목행동, 목계나루 등 한강의 절경을 간직한 명소임에도 시민들조차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며 "외곽에 치우쳐 있는 충주의 강을 문화·관광·생태환경·건강 도시 충주의 거점으로 키울 아이디어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친환경 그린수소의 강점을 부각시킬 부서간 협업과 아이디어 공유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읍면동마다 근무하는 곳의 현재 상황과 미래 가능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나아가 주민과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발전적인 변화를 실현해 달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지역주도 일자리, 활기찬 천안! 본격 시동, 일자리 창출 결의

천안지역일자리추진단 구성 이후 첫 보고회, 2023년 일자리 사업 계획 공유

천안시는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주도 일자리, 활기찬 천안'을 위한 민선 8기 첫 2023년 일자리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천안지역일자리추진단 구성 이후 부서별 100여 개 일자리사업에 대한 공유와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1월 신동현 부시장이 단장을 맡아 일자리경제과를 필두로 26개 일자리사업 추진부서로 구성된 '천안지역일자리추진단'을 새로이 구성해 내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2만8000개의 일자리, 15세~64세 고용률 68.6%를 목표로 연차별 일자리 세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말 천안시 누리집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일자리 5대 핵심전략과 13대 실천과제에 따라 각 부서는 100여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기업성장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 연계를 통한 민간주도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산업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저탄소와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 및 노동전환에 선제 대응과 더불어 제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 취·창업 활성화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동현 부시장은 "이번 일자리 사업 보고회를 통해 전 부서가 천안시 일자리사업에 대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동해시, 개청 43주년 기념 관광 홍보 이벤트

동해시는 동해시 개청 43주년을 맞아 '너도? 나도! 인플루언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동해시 하면 ○○○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홍보사진 또는 동영상 1개 이상, 관광홍보 관련 글 100자 이상을 동해시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를 하면 기념품(보조배터리, 천곡항금박쥐등골 스노우볼, 텀블러 중 택1)을 지급하는 행사이다. 블로그, 유튜브, 맘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자유롭게 동해시 관광 홍보글을 업로드 후, 인증샷을 관광 홈페이지에 첨부하여 이벤트 참여 신청을 하면 망상·추암·무릉계곡 관광안내소에서 기념품을 지급한다.

이동원/기자

시는 이번 행사가 동해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하는 만큼, 시민 스스로가 숨은 명소를 찾아 자발적인 동해관광 홍보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공동체 시민의식 형성은 물론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월출 문화관광과장은 "동해시 개청 기념일을 맞아 전 시민이 참여가 가능한 관광 홍보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동해시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모두가 애郷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상반기 중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원주시는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구체적 실행 근거 마련을 위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지난 17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제정돼 7월 5일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위원회의 역할과 시장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원주시는 이날 말 조례가 공포되면 상반기 중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2021년 4월 지속가능발전TF팀을 구성하고 시민사회 주도의 주민

속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114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을 수립한 원주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자연이 숨 쉬고, 시민이 즐겁고, 미래가 안전한 지속가능한 도시 원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농촌진흥청, '한우 우량 암소 선발 기술' 설명회 열어

16~17일 안성서 개최, 유전체 분석 및 초음파 육질 진단 암소 선발

정부는 한우 수급 관리 대책 중 하나로 내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암소를 비육해 출하할 것인지,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소로 사육할지 판단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암소 유전체 분석과 초음파 육질 진단으로 한우 우량 암소를 선발할 수 있는 '한우 우량 암소 선발 기술 설명회'를 16일과 17일 이틀간 안성시농업기술센터와 한우 농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8개 도 농업기술원과 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축산 담당자가 참석해 한우 개량의 이해, 농가 단위 암소 선발 체계 구축, 한우 유전체 분석 활용 방법,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 기술 등 강의를 듣고, 농가 현장 교육도 받았다.

유전체 분석 기술은 암소의 털뿌리(모근) 또는 혈액을 이용한 유전체 분석으로 주요 경제형질에 대한 유전능력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초음파 육질 진단 기술은 약 24개월령 암소 육질을 초음파로 진단해 일은 등심단면적, 근내지방도 정보와 외모 심사, 아비쪽(부계) 혈통정보 등을 종합해 고급육 생산에 유리한 암소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가지 기술을 모두 활용해 농가 단위 우량 암소 선발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1차 초음파 육질 진단 기술로 상위 능력 암소를 선발한다.

선발된 암소를 대상으로 2차 유전

체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유전능력이 뛰어난 우량 암소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선발된 우량 암소는 개체별 교배계획에 따라 송아지를 지속해서 생산해 암소 개량에 활용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능력이 낮은 암소는 비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사육 후 출하한다.

우량 암소 선발 기술을 이용하면 지역 내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이 매우 쉽고, 능력이 낮은 암소 출하를 유도할 수 있어 암소 감축 사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과 2022년 전국 15개소 179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에는 마지막으로 6개 시군 64농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 사업으로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박수현 지도사는 "능력이 뛰어난 암소를 보유하는 것은 농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엔 배운 우량 암소 선발 기술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농가의 관심이 씨수소 선발에 의한 수소 위주의 개량에서 우량 축군 조성을 통한 암소 개량으로 옮겨지고 있다. 우량 암소 선발 기술이 정부의 암소 감축 사업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신속 대응 '기업유치' 추진

이달히 경제부지사 투자유치 간담회, 유한건강생활 본사 방문

경북도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안동바이오생명 산업단지가 선정됨에 따라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일 이달히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유한건강생활 본사를 방문해 투자유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중수 유한건강생활 대표, 김형동 국회의원, 최종익 안동시 경제산업국장 등이 참석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따른 생산공장 건립 제안 및 헴프 산업 규제, 바이오생명 도시 생태계 조성 등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한건강생활은 천연물 연구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일반식품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딩하는 프리미엄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특히 2020년부터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여해 산하 조직 유한천연물연구소를 통해 국내 산 헴프 연구(초미세분쇄 추출 및 정

제기술을 이용한 CBD Isolate원료의 약품 제조와 시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달히 경제부지사는 강중수 유한건강생활 대표에게 약 40만평 규모의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을 설명하며, 현재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여해 연구 중인 칸나비디올(CBD) 원료 의약품 및 천연물 제조 공장기반을 안동에 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형동 국회의원에게는 환각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CBD)이 포함된 의약품을 안동시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산업용 대마 '헴프' 규제를 풀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서 국가 바이오산업을 향후 안동시가 주도하기 위한 도시 생태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헴프 사업에 직면하는 규제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달히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업



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어야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기업 밀착관리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

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해 향후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합동회의 개최

경기도, 20일 안성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

경기도는 20일 안성시립 아양도서관에서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고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투자유치 방안을 대해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지난달 안성시와 투자 입지 여건에 대한 기업 유치 방안 논의 후 첨단산업 선도(앵커)기업 유치 전략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등 15명의 도-시-군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도가 분석한 광역 산업 육성 관점에서의 안성시 투자유치 방향과 산업 유치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성시는 제5 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동신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신소재 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등 첨단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반도체(소부장) 특화 단지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 시-군의 개발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경기도의 노하



우를 전수하고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찾아가는 투자유치컨설팅 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을 12회(전략 합동회의 5회, 투자자 팸투어 7회)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2월 용인시, 3월 김포시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개발 가능지에 대한 개발 방향 설정,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관심 투자자의 팸투어 등 유치전략을 자문 했다.

앞으로도 도는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정보를 빠르게 입수해 개발

가능지가 있는 시-군과 함께 현황을 돌아보는 팸투어와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안성의 경우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반도체 등 유관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안성시 산업단지에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반드시 유치해 안성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강원도, 도내 수출기업 UN·해외조달 진출 컨퍼런스 개최

강원도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수출시장 진출과 수출 다변화를 위해 오는 3월 21일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UN·해외조달 진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UN 산하기업에 대한 소개, UN기구 조달시장 진출방안, 아프리카(우간다, 나이지리아) 정부 관계자의 기관소개 순서로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해외 공공조달 관계자들에게 도내 우수 혁신기업을 소개하게 된다.

연사로는 UN소속의 유네스코 아프리카 대륙 책임자, 유엔난민기구 민간 파트너십 책임자, 유엔해비타트 나이지리아 청년프로그램 책임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에 우간다 공공서비스부 장관 특사와 나이지리아 보건부 국제협력국장을 초청, 아프리카 정부조달 진출을 위한 강원도와 의 파트너십 협력관계도 함께 다질 계획이다.도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수출 유관기관과 대표기업 20개사가 참여, UN·해외정부 공공 조달시장의 잠재성과 이해를 높이는 등 도내 기업들이 해당 조달시장 진출에 한 발 더 앞서가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21년 기준 21억 달러의 규모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의 참여 낙찰 점유율은 1.7%인 362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으로,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울릉군 ULLUNG-GUN

새희망! 새울릉!

봄여행, 즐길 준비 되셨나요?

울릉도·독도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봄여행

천혜의 자연과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울릉도·독도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낭만과 즐거움을 느껴세요!!

경기문화재단, 평택 신리 유희공간을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다

경기도, 평택시, 경기문화재단이 협력사업으로 추진

경기도, 평택시, 경기문화재단은 2023년 3월 20일 평택 신리에 “공간미학(空間米學)”을 개관한다. 2021년 경기도 유희공간 활용 문화공간 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의 조성 기간을 거쳐 평택의 새로운 문화복합공간으로 문을 연다. 경기도 문화 다양성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공간 확산사업으로 시작됐으며, 경기도와 평택시의 문화정책실행과 경기문화재단 문화공간조성 전문성을 결합한 공공 협력사업이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신리길 59-18 “공간미학”은 1992년 농촌생활환경 정주권사업으로 만들어진 창고형 건물로 신리 특단지(버섯재배사)로 운영됐으며, 2001년도 버섯작물에 대한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일부 공간은 농기계 창고로 활용되어 공간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었다. 2021년 마을협동조합 주관으로 주민들은 방치된 창고건물을 문화시설로 전환하여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공간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자립 공간으로 기획했다.

평택시는 신리 특단지 명칭을 “공간미학(空間米學)”으로 변경하고,

공간의 특성을 마을협동조합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 지역문화자원 활용하는 전시관, 지역특화상품 판매등으로 공간을 설계했다. 공간조성을 위한 재원은 경기도 유희공간 재생사업비와 평택시 문화관광거점조성 사업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공공예술 기획발굴사업 예산을 결합하여 마련함으로써 경기 남부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평택 “공간미학”이 담아내려는 지역문화 콘텐츠는 오성면 신리 지역 특산물인 ‘쌀’을 주제로 쌀과 지역주민의 삶 그리고 쌀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문화이다. 전통적인 쌀의 생산과 소비에서 현대적인 생산과 소비로 전환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 장소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공간미학의 공간 설계 기획을 신리 특산물인 “쌀”에서 착안하여 지붕 외형을 “ㄴ”이 중첩되는 형태로 만들었으며, 전시공간과 마을자립공간으로 분리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설계했다. 설계에 참여한 김현정, 황태훈 건축가는 “1992년 조성된 창고 외형이 지역적 문화를 잘 나타내



는 건축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하면서 “신리 논·밭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게 개방성을 강조하여 공간미학을 찾는 분들에게 평택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게 설계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 공공예술은 지역 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예술 분야와 결합하여 전기형태, 공간조성, 작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나 평택 “공간미학”

은 건축과 지역문화를 하나의 공간으로 담는 방식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신규 문화거점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재임 기간 경기도에 문화가 지속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기도만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공간미학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조혜영/기자

강릉아트센터, 미래의 발레리나·발레리노를 모집합니다

30일까지 국립발레단과 함께하는 ‘꿈나무 교실’ 선착순 모집

강릉아트센터는 발레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과 공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국립발레단 꿈나무 교실”을 운영한다.

꿈나무 교실은 (재)국립발레단과 함께하며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주 2회 강릉아트센터 사무당홀 리허설룸에서 국립발레단 출신 최정운 발레리나 전문강사의 지도로 정기적인 발레 교육 수업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작품 제작에 참여하여 10월 중 합동 기획공연으로 첫 무대에 오르게 되고, 공연 종료 후 티켓 판매 수익금은 강릉시 아동복지기관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30일(목)까지 소외계층 초등 3~5학년 학생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 참여 비용은 전액 무료로 발레복, 슈즈 또한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강릉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강릉아트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심규만 강릉아트센터 관장은 “전문 공연장의 하드웨어 시스템과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들원/기자



뮤지컬 ‘싯다르타’ 용인포은아트홀서 개최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뮤지컬 ‘싯다르타’를 오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용인포은아트홀에서 개최한다.

뮤지컬 ‘싯다르타’는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한 창작 뮤지컬로 2600년 전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가 부와 명예를 버리고 출가를 결심해 온갖 고행을 거쳐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음악과 안무를 더해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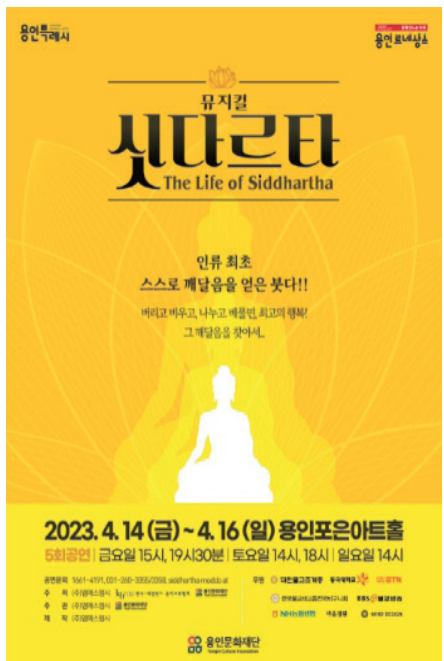
2019년 초연을 시작으로 올해 5시즌을 맞이해 더욱 완성도가 높아진 이번 공연에는 드라마 ‘오케이 판자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화랑의 혼, 대왕문무’ 등에서 눈도장을 찍었던 뮤지컬 배우 서도진과 JTBC ‘풍류대장’에 출연한 국악밴드 ‘AUX’의 보컬 이경수가 주인공 싯다르타 역에 더블 캐스팅 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 외에도 싯다르타의 상대역인 아소다라 공주를 뮤지컬 배우 김봉과 박수련이 연기하고, 싯다르타의 수행을 방해하는 마라 파피야스 역에는 윤진웅과 송권웅, 싯다르타의 아버지 슈도나나 역에 최형석, 박태성 등 뮤지컬계 스타들이 출연해 폭발적인 고음과 활력 넘치는 안무로 눈을 땔 수 없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관계자는 “종교를 넘어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순수 창작 K-뮤지컬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깨달음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작품이다”고 전했다.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로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대전시, 대전 0시 축제 캐치프레이즈 공모

4월 2일까지 온라인 접수, 참여자에게 다양한 경품 증정

대전시가 오는 8월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의 비전과 정체성을 창의적으로 담아낸 캐치프레이즈를 4월 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도시 대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전 0시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철 축제이자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를 목표로 8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축제의 비전과 특색을 함축적으로 담은 15글자 이내의 문구를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우수·장려 등 10개 작품을 선정해 경품을 지급한다. 최우수 작품에겐 50만 원 상당의 경품이 주어지며,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음료 기프티콘

도 제공한다.

선정된 작품은 포스터·현수막 등 다양한 축제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며,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관광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도시수 문화관광국장 “대전 0시 축제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인 만큼, 이번 캐치프레이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면서, “대전 0시 축제가 재미있는 축제, 경제를 살리는 축제,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0시 축제는 오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대전역에서 옛)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째로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원호/기자



경남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 하동차홍보단과 하동녹차 홍보

20~21일 하동차(茶)홍보단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찾자리 펼쳐

경남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와 하동군이 차(茶) 분야 최초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 개최 사전 특별 홍보로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동녹차 시음 행사를 열고 있다.

20일 조직위에 따르면 경남관광사 진전 행사가 열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하동차홍보단과 엑스포 조직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동녹차와 발효차 시음과 및 홍보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엑스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엑스포 대표 캐릭터인 하니 동이와 요정 친구들도 이용객들의 관심을 끌며 특색있는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에 함께한 하동차(茶)홍보단은 2004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많은 하동군 관내 주요 행사 축제가 있을 때마다 하동차 시음을 할 수 있는 찾자리를 진행해오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제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이미지’를 서울 권역에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온라인 홍보도 더불어 발로 뛰는 오프라인 홍보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구상하여 엑스포 행사장에 전국의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



를 주제로 오는 5월 4일~6월 3일 31일간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축제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입장권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 및 인터파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경우 25~40%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오는 3월 31일 서울 주재 주요 관광 대상 엑스포 설명회 및 4월 1일 D-30일 사전 볼 조성 행사로 체계광장에서 개최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왕의 녹차 진상식’과 함께 행사기간 동안 다례 체험, 각종 공연, 이벤트 등 100여 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차의 가치와 효능을 직접 느끼게 하고, 하동과 경남의 아름다운

최광용/기자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사와 온라인 전시투어 떠나요



서울공예박물관은 상설전시인 공예역사 전시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와 직물 공예 전시 ‘자수, 꽃이 피다’·‘보자기, 일상을 감싸다’를 기획한 학예연구사가 직접 소개하고, 주요 작품과 전시물을 설명하는 전시해설 영상 6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학예사와 떠나는 온라인 전시투어’는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매일 12시에 공개된다. 서울공예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10~15분 내외 길이로 서울공예박물관 상설 전시와 주요 유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 산업기술로 인식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4편에서는 공예 역사 전시 네 번째 테마인 ‘공예, 시대를 비추다’로 일제강점기의 공예를 다룬다. 전통공예가 위축되고 공예품이 관광 상품으로서 주목받으면서 백화점이나 상점을 통해 유통되는 등 산업공예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순수미술로서 공예의 지평이 열려 현대공예의 토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5~6편은 자수와 보자기를 다루는 ‘직물 공예 전시’ 투어로 이승해 학예연구사가 해설을 진행한다.

5편에서 다루는 직물 공예 전시 ‘자수, 꽃이 피다’는 자수 병풍을 회화적 관점으로 재조명하고, 일상생활 구석 구석을 수놓은 여인들의 마음을 담은 문양의 의미와 자수 기법을 소개한다.

6편에서 다루는 직물공예 전시 ‘보자기, 일상을 감싸다’는 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돼 온 보자기를 소개하고, 우리의 일상 속 오래도록 함께했던 보자기의 다양한 모습과 쓰임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공예박물관 김수정 관장은 ‘학예사와 떠나는 온라인 전시투어’로 현장 방문 시 더욱 즐거운 관람 경험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도 서울공예박물관의 공예를 속속들이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방문 시, 1~4편에서 다루는 공예 역사 전시는 서울공예박물관 전시 1동 2층과 전시2동 2층에서 관람할 수 있다. 5~6편에서 다루는 직물 공예 전시는 전시3동 2~3층에서 관람할 수 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열려 있다.

최광수/기자

인천 중구,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 인정 가이드라인 설정한 김종근 주무관 등 6명 시상

인천 중구는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후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17일 진행했다.

이번에 수상한 우수공무원은 총 6명으로 최우수 ▲건축과 김종근 주무관을 비롯해, 우수 ▲교통운수과 김민정 주무관 ▲환경보호과 박인아 주무관, 장려 ▲친환경위생과 김영완 주무관 ▲세무1과 김진영 주무관 ▲도시행정과 황정호 주무관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건축과 김종근 주무관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사업 인정을 실효시키는 방안 및 새로운 사업인정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국 최초로 토지보상 사업 인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로써 속도감 있는 인건여상 주변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우수상을 교통운수과 김민정 주무관은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인천역 접근성 개선 및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KTX 인천역 유치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

여 서명운동 참여인원이 목표 인원 대비 2배 초과한 6만 명을 달성했고, KTX인천역 유치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우수상의 환경보호과 박인아 주무관은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유가보상을 해주고 회수된 재활용품을 100% 재활용하는 '자원순환가게 중구 RE-숍'을 대형마트 내에 신설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우천시에도 운영 가능한 장소 선정을 위해 인천 최초로 대형마트와 협력하여 현재 이마트 동인천점, 롯데마트 영종도점, 하나로마트 하늘도시점에서 '중구 RE-숍'을 운영중이다.

장려상의 친환경위생과 김영완 주무관은 농민의 올바른 폐기물 배출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한국농촌 지도자 협회와 인천 중구 농협과 협업하여 민간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실시했고 영농폐기물 상시 수거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작년 대비 폐기물 수거량이 291% 증가했다.

장려상의 세무1과 김진영 주무관은 과세 사례가 부재하여 자료 확보가 어려운 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과세자료 조사로 12억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고 향후 매년 2~3억 가량의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장려상의 도시행정과 황정호 주무관은 선녀바위 지적제조사업 목표 공정치를 조기 달성함으로써 주민속원 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했고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평가 1위를 달성하여 인센티브 225,000천원을 확보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하여 세계특기계좌표 변환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시 좌표 변환 우수사례에 채택됐다.

김정현 구청장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이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이라며 "선정된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널리 알려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 '대한간호정우회' 의정대상 수상



경북도의회 남영숙(국민의힘, 상주) 농수산위원장이 지난 2월 24일 '대한간호정우회 정기 대의원 총회 및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간호정우회는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간호정치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1991년 창립하여 올해 32년차를 맞이한 단체로, 남 의원은 부회장을 맡고 있다.

남영숙 의원은 제11대 도의회에서 '경상북도 학생 보건의료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2021년부터 도내 학생 수 40명 이상 728개교에 90명의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의회 최초의 감염병대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도내 코로나 방역에 앞장섰으며, 도정질문을 통해

보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여 도지사의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2021년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여 모자보건에도 기여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부의원협의회장'으로 추대되어 경북 여성들의 정치 참여여건 조성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앞장서고 있는 남 의원은, 지난달에는 당 전국협의회 부회장으로도 선임됐다.

남영숙 의원은 "후배 간호사들에게 남영숙이라는 선배 간호정치인이 있었다고 기억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오산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 김갑례 위원장, '효행대상 수상'... 고독사 예방 노인돌봄 실천

오산시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갑례 위원장이 지난 18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 돌봄 실천의 공을 인정받아 스페이스골드 월드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최고 효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효행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 최고 효 인물대상 시상식은 이재욱 국회의원, 사)한국효도회, SG골드그룹에서 주관으로 효심을 잃지 않고 효행을 실천하는 인물을 선별하여 상을 수여함으로써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효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갑례 위원장은 세마동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및 마을 곳곳의 독거 어

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섬기는 일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갑례 위원장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게 너무 즐겁다"며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르신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세마동장은 "고독사가 늘어나는 시대에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동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마을복지에 힘써 나아가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시현/기자



수원시, '2023 힐링폴링 수원화성' 축제 총감독 위촉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4개 가을축제 총감독 4명에게 위촉장 수여

수원시가 '2023 힐링폴링 수원화성' 4개 가을 축제의 총감독을 위촉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7일 집무실에서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 조형제 총감독,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오제열 총감독,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윤기철 총감독,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이원준 기획감독 등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3 힐링폴링 수원화성'은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10월 7~9일)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9월 23일~10월 14일)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10월 8~9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9월 16일~10월 15일) 등 가을에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리는 4개 축제를 이르는 말이다.

수원화성문화제 조형제 총감독은 조선양릉문화제 총감독(2022) 등을 지냈고,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오제열 총감독은 한산모시문화제 총감독(2017~2022) 등으로 활동했다.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윤기철 총감독은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기획운영단 예술감독(2022) 등으로 활동했고, 수원화성미디어아트쇼 이원



준 총감독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운영감독(2021~2022)·인천 개항장 미디어아트 총괄제작·연출(2021) 등을 지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풍부한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축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뛰어난 분들을 총감독으로 위촉하게 돼 기쁘다"며 "4개 축제가 제각각의 특색을 살려 수원인의 멋과 수원화성의미를 알리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수원의 가을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감독님들 모시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멋진 축제를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2023 스페이스골드 대한민국 최고 효 인물대상' 수상 영예

윤순옥 의장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 스페이스골드 대한민국 최고 효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국가사회 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스페이스골드 월드페스티벌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SG골드그룹, 사)한국효도회, 이재욱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각 분야·계층에서 지역에 대한 봉사 및 효의 정신을 실천한 모범 대상자를 선발하여 이루어지는 상으로서, 윤순옥 의장은 6개 수상분야 중 '국가사회 공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순옥 의장은 "많이 부족하지만, 귀한 상을 수상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 그리고 효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양평군의회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



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 의장은 2018년 양평군의회 제8대 의원을 시작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2022년

양평군의회 제9대 의원에 재선 및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성욱/기자

의성군, 최해완 작가 도자기 분야 명장 지정

의성군은 '제1회 의성군 명인·명장'으로 도자기 분야 최해완작가를 선정했다고 3월 17일에 밝혔다.

의성군 명인·명장은 수십년 간 의성 문화예술 진흥에 힘써온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 명인·명장 조례를 2022년 의원발의(황무용 의원 대표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3년 처음으로 '의성군 명인명장 심의회'를 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의성군 명장 1호를 선정했다.

명장으로 선정된 최해완 작가는 의성군 의성을 출신으로 40년간 도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제25회 대한민국신미술대전우수상(2007년)', '제17회 국제종합예술대전 국제대상(2021)', '제37회 대한민국 전통미술대전 대상(2022)' 등 다양한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해완 작가는 전통 도자기 기법인 분청자기 기법을 주로 사용했으며, 전통기법을 이용하여 의성군의 풍경과 연꽃, 물고기를 활용한 작품활동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작가는 "영광스러운 의성군 명장에 최초로 지정받아 그동안 작품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의성군 명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의성군에서 후진양성과 문화 홍보, 예



술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 최초 명장인 최해완 작가에게 축하의 인사

말을 전하며, 앞으로 의성군 예술 발전을 위해 작가의 끊임없는 창작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김해시 "동계체전 최연소 4관왕 자랑스럽습니다"

김해시는 제104회 전국동계체전 알파인스키 최연소 4관왕에 오른 신혜오 선수(13·진례중 1년)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홍태용 시장은 지난 17일 시장실에서 신 선수와 신 선수의 아버지를 만나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4관왕 수상을 축하했다.

제104회 전국동계체전은 지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등에서 분산 개최됐으며 신 선수는 13세 이하부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대회전, 복합, 회전에서 4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기록은 이번 대회 알파인스키 유일한 기록이자 최연소 수상이어서 의미를 더하며 대한체육회는 최연소 4관왕이 된 신 선수에게 '꿈나무상'을 수여했다.

신 선수는 장유부곡초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취미로 시작한 스키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였지만 경남에는



스키부를 둔 학교가 없어 개인적으로 훈련했으며 경기도와 강원도 쪽 학교의 스카우트 제의를 뒤로하고 올해 진례중학교에 진학했다.

신 선수는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예체능 꿈나무 분야 장학생으로 2021년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제104회 전국동계체육

대회에서 최연소 금메달 4관왕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한 신혜오 학생에게 김해시민을 대표해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신혜오 선수처럼 자신의 꿈을 지역에서 이뤄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경상북도로 기부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풍성한 답례품은 **덤**으로!

기부지역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모든 시도 / 시군에 기부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까지

- 기부혜택**
- ①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공제
 - ② 답례품 증정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선택

기부방법 ①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www.ilovegohyang.go.kr



가입

준비물
PC, 휴대폰



기부하기



위택스 결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답례품 선택

※ 위택스 사전가입 필수

기부방법 ②

NH농협 방문 신청



농협 방문 신청
준비물
신분증



신청서 작성



현장 결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답례품 선택

※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모여진 기부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 생계지원**과 **청소년 육성** 등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집니다.

문의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 054-880-2836, 2838